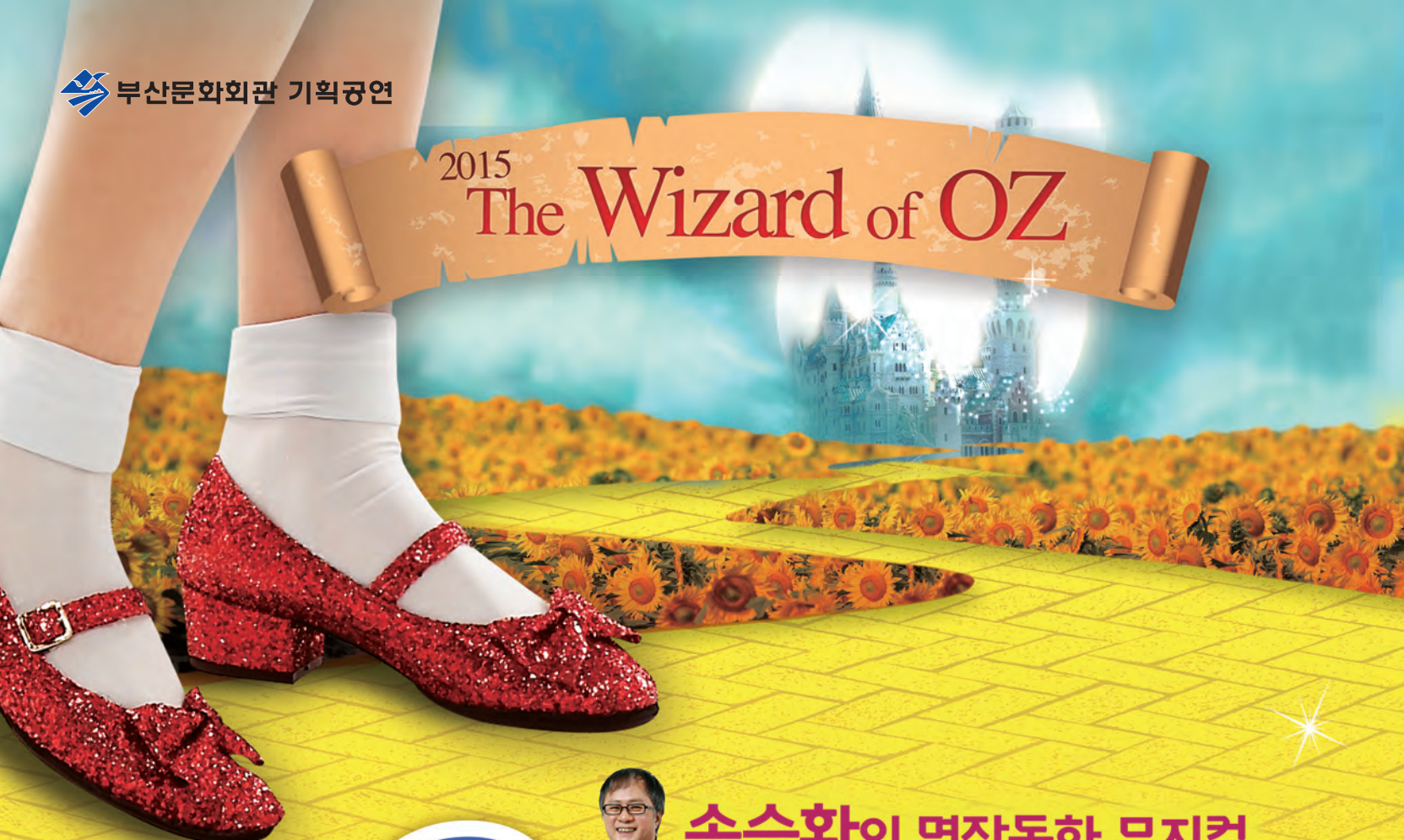


2015 The Wizard of OZ



송승환의 명작동화 뮤지컬

# 오즈의 마법사



2015. 4. 11 (토) am 11:00 pm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K 국제신문 주관 부산문화회관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권 20%할인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ticketlink 1588-7890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 March

##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03 vol.279



### Cover Story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반갑습니다 성악가 엄정행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침체된 주택가의 작은 변화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지휘 리 신차오  
Li Xincao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8회 정기연주회

# TITAN

리신차오와 부산시향의 “거인”

Program

-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다장조 작품467  
W.A. Mozart | Piano Concerto No.21 in C Major K.467
- 말러 | 교향곡 제1번 라장조 「거인」  
G. Mahler | Symphony No.1 in D Major "Titan"



피아노 존 오코너  
John O'Connor

2015. 3. 10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6041~7 (공연과)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 서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한국초연 10주년 기념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

# NOTRE DAME DE PARIS

10<sup>th</sup> ANNIVERSARY 2005-KOREA-2015



노트르담드파리

French Original Tour

2015. 3. 20 - 3. 29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March 20 - 29, 2015 at Sohyang Theater Lottecard Hall

TICKET | 인터파크 INT (1544-1555) ticket.interpark.com INFO | 950-6500

ORGANIZERS | KNN mast 인터파크 INT Production | enzo

# 41st Busan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제41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5년 3월 24일(화) 오후7시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Tuesday 7:30pm | March 24th 2015 | Busan Cultural Center



지휘  
아모리 두 클로셀  
Amaury du Closel  
(티르구무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종신지휘자)



협연  
송유진  
Yoo-Jin Song 피아노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usan Symphony Orchestra

브람스 / 비극적 서곡 작품81  
J. Brahms / Tragic Overture Op.81

브람스 / 교향곡 제2번 작품73  
J. Brahms / Symphony no.2 in D Major, Op.73

라흐마니노프 /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43  
S. Rachmaninov /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Op.43

# 42

## 제42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YG CONCERT YOUNG GENERATION CONCERT

42ND BUSAN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 BEETHOVEN Symphony Series III

Program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 작품37  
L. v. Beethoven Piano Concerto No.3 in c minor, Op.37  
베토벤 교향곡 제3번 E♭장조 '영웅' 작품55  
L. v. Beethoven Symphony No.3 in E♭ Major, 'Eroica' Op.55

지휘  
다니엘 S 김

피아노  
김영실

2015. 4.13 |월| pm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굿모닝백이안과

티켓 전석 1만원 (전석 학생 50%할인)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ticket.interpark.com

문의 051)621-4577 | www.bso21.com

주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부산은행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굿모닝백이안과

티켓 VIP석 3만원 . R석 2만원 . A석 1만원 (전석 학생 50%할인)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문의 051)621-4577 www.bso21.com

제 39회 을숙도명품콘서트

오정해와 함께하는  
우리 가락

春風  
춘풍

예술감독 김원명

사회·소리 오정해



지휘 홍희철



지휘 서나영



고토 카타오카 리사



소프라노 구민영



소프라노 윤선기



바리톤 김창돈



사물놀이 경북도립국악단 타악팀

2015.3.19 목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부산국악오케스트라 BKO

후원 | 부산원음방송,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2천원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연주 부산국악오케스트라 BKO

C o n t e n t s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al Story<sup>+</sup>

- 08 커버스토리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 10 공연일정
- 12 반갑습니다  
가곡의 대중화 이끈 성악가 임정행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브레이크인 모짜르트\_김지혜
- 18 불멸의 거장\_박목월①  
국민시인 박목월\_장윤익
- 20 건축, 부산을 만나다  
침체된 주택가의 작은 변화-마로인 사육\_강기표
- 22 그곳에 가면  
전국 최초 삼국시대 생활사 박물관 정관박물관
- 24 우리는 문화가족  
연제구 여성합창단

Boards Inside<sup>+</sup>

- 28 프리뷰
- 34 리뷰
- 36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sup>+</sup>

- 54 새로 나온 책
- 55 새로 나온 음반
- 56 부산문화회관 소식
- 5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0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안내
- 62 부산문화회관로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5년 3월호 통권 279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인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5년 2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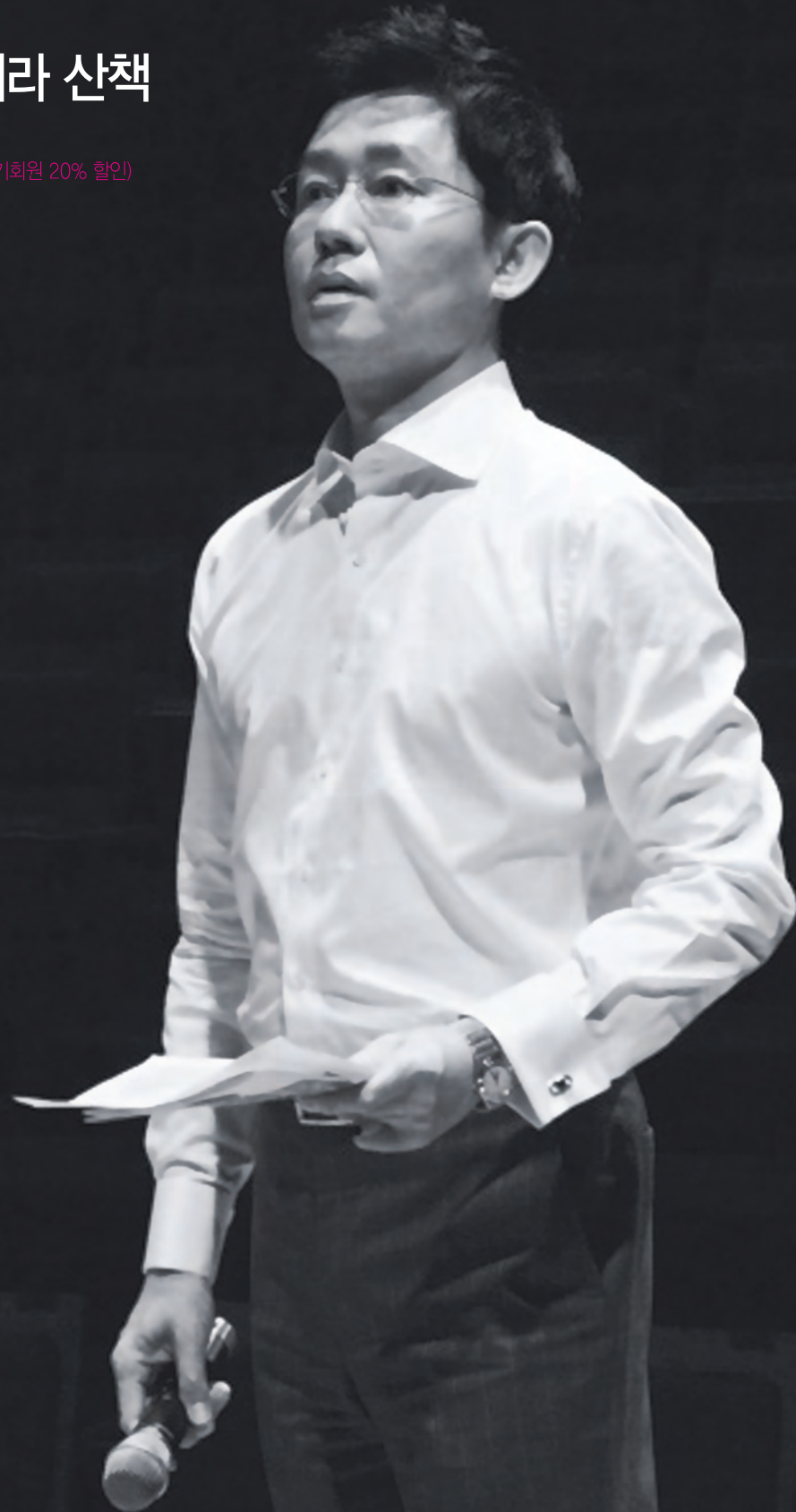
##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3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607-6066, 607-3100

부산문화회관이 오페라 애호가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해온 '해설이 있는 오페라 음악회' 2015년 무대가 국내 유명 성악가들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 유명 오페라 세계로 안내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 손범수가 해설을 맡아 어렵고 다가가기 힘들다는 오페라 선입견을 깨는 특별한 무대를 열어준다.

방송인 손범수 외에도 세계적인 지휘자 사이먼 래틀로부터 '앞으로 주목하고 싶은 젊은 지휘자', 주빈 메타로부터 '훌륭한 음악성을 지닌, 아주 뛰어난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았던 지휘자 이태정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박은주, 양지영,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정상혁, 바리톤 박대용이 출연,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시민들과 만나는 아나운서 손범수는 1990년 KBS 17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가요톱텐',



따뜻한 감성과 지적인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 손범수의 해설로 오페라 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나는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이 3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휘 이태정    소프라노 박은주    소프라노 양지영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정상혁    바리톤 박대용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는 서울 예술의전당 인기 프로그램인 '토크 앤 콘서트'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친숙한 목소리와 해설로 음악회 사회자, 해설자로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지휘자 이태정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오페라 지휘, 오페라 코치를 공부한 후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비엔나 국립음대 지휘 최고연주자 과정 재학 시 유럽 최정상급의 오페라 지휘자인 베르트랑 드 비의 부지휘자로 발탁되면서 비엔나의 유서 깊은 오페라 극장인 테아터 안 데어 빈에서 힌데미트의 대작 오페라 '화가 마티스' 공연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의 오페라 페스티벌인 '슈타이어 뮤직 페스티벌'에서 2008/2009 시즌 부지휘자, 오페라 코치로 활동하였다. 2010년과 2013년에는 비엔나 무지크페라인에서 오스트리아의 국영 오케스트라인 비엔나 방송교향악단을 지휘했다.

다양한 오페라 무대를 통해 능숙한 고음 처리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켜온 소프라노 박은주는 1991년 에리카 콧트 성악콩쿠르 1위, 1994년 룩셈부르크 국제 콜로라투라 성악콩쿠르 장려상, 1995년 로베르트 슈톨츠

콩쿠르 관객상, 1998년 브레머하펜 관객상 등을 수상했다. 1995~99년까지 브레머하펜 극장 주역 가수로, 1999~2005년까지는 도르트문트 오페라하우스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 서온 박은주는 2003/2004 시즌 아당의 '롱쥐모의 우편배달부'로 독일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주 2003 최고 성악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은주는 현재 부산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 3대 오페라단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아들러 펠로우쉽(Adler Fellowship)에 한국인 소프라노 최초로 최종멤버로 선발된 소프라노 양지영은 '마음을 움직이는 탁월함 그리고 음악적인 이해력과 특출한 감정의 전달력이 어울어진 노래'라는 찬사를 받으며 바그너 오페라 '탄호이저'의 목동역으로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가진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콩쿠르 입상, 2005년, 2006년 슈리브포트 오페라단 '올해의 성악가상' 수상, 2009년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은 2007년 국립오페라단 '카르멘' 주인공으로 발탁되어 국내 무대에 데뷔한 후

2013년 폴란드 브로츠와프 국립극장에서도 '카르멘'으로 데뷔, 유럽 현지 언론으로부터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와 탄탄한 발성, 매력적인 연기'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양대학교 재학 당시 성대결절 신고를 받은 후 7년간의 시련을 딛고 일어서 화제가 된 테너 정상혁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영아티스트 최종 예선에 노미네이트 되는 영예를 안으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바리톤 박대용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이탈리아 주세페 니콜리니 국립음악원, C.E.D.E.M 국제성악아카데미, 루이지 보케리니 성악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칠레아 성악콩쿠르 우승, 엔나 국제 성악콩쿠르 3위, 콜레페로 국제성악콩쿠르 2위, 프랑코 코렐리 국제성악콩쿠르 뮤제극장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무대에서는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슈트라우스 '박쥐'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발췌, 듣기 친숙한 가벼운 오페라로 구성한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비제 '카르멘', 푸치니 '투란도트' 등 오페라의 유명 서곡과 아리아 중창, 합창이 함께하는 웅장한 무대로 꾸며진다.

\* 위 출연자 및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3

## 2015 / MARCH CULTURAL SCHEDULE



인터넷 예매



공연일정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안내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b>1</b> <b>대</b> ● 내츨러리 세븐 내한공연 in 부산 17:00 9만 9천원 · 7만 7천원 · 5만 5천원 3만 3천원 지니콘텐츠(02-568-8831)	<b>2</b> <b>소</b> ●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48)	<b>3</b> <b>소</b> ●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48)	<b>4</b> <b>중</b> BTN 개국 20주년 기념 '나무아래 앉아서' 특집공개방송 '함께 걷는 세상, 아름다워라' 14:00 무료/BTN(02-3270-3431)	<b>5</b> <b>소</b> ●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48)	<b>6</b> <b>소</b> ●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48)	<b>7</b> <b>소</b> ●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17: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48)
<b>8</b> <b>소</b> ●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17: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48)	<b>9</b>	<b>10</b> <b>대</b>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8회 정기연주회 '리산차오와 부산시향의 거인'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54)  <b>중</b> The 판타스틱 오페라&뮤지컬 II 'G.G.Go 복고' 20:00 균일 3천원 오페라컴퍼니(010-8776-0485)	<b>11</b> <b>대</b> 2015 문화중국 사해중춘 예술공연 19:00 초대 (사)한중문화우호협회(02-335-1288)  <b>소</b> 부산시립무용단 '춤추는 동화-클라라와 호두이야기' 11:00 균일 1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45)	<b>12</b> <b>중</b>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5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19:30 무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47)  <b>소</b> 부산시립무용단 '춤추는 동화-클라라와 호두이야기' 11:00 균일 1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45)	<b>13</b> <b>대</b> ● 부산시립합창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봄, 그리움, 그리고 사랑'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2)  <b>중</b>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5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19:30 무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47)  <b>소</b> 부산시립무용단 '춤추는 동화-클라라와 호두이야기' 11:00 균일 1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45)	<b>14</b>
<b>15</b> <b>중</b> 이미란의 춤 17:00 균일 1만원 이미란무용단(010-5526-6491)	<b>16</b> <b>대</b> U.K.O 제36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나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 U.K.O(010-3863-3087, 626-8084)  <b>중</b> 소리쟁이 성악연구회 '2015 신년음악회' 19:30 균일 2만원 소리쟁이 성악연구회(010-4434-6605)  <b>소</b> 부산시립무용단 '춤추는 동화-클라라와 호두이야기' 11:00 균일 1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45)	<b>17</b> <b>중</b> Blessed People! 창단연주회 19:30 균일 2만원/강호진(010-2380-9991)  <b>소</b> 부산시립무용단 '춤추는 동화-클라라와 호두이야기' 11:00 균일 1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45)	<b>18</b> <b>중</b> 아마치 세멜레 제4회 정기연주회 '봄! 봄! 봄! 봄을 노래하다' 19:30 3만원 · 1만원 / 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 (010-9334-6105)  <b>소</b> 부산시립무용단 '춤추는 동화-클라라와 호두이야기' 11:00 균일 1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45)	<b>19</b> <b>대</b> 영호남 화합한마당 장애인 인식개선 신년 자선음악 콘서트 18:30 초대/(사)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758-5684)  <b>중</b> 윤민영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윤민영(010-4998-3530)  <b>소</b> 부산시립무용단 '춤추는 동화-클라라와 호두이야기' 11:00 균일 1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45)	<b>20</b> <b>소</b> 부산시립무용단 '춤추는 동화-클라라와 호두이야기' 11:00 균일 1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45)	<b>21</b> <b>중</b> 2015 제11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본선 심사 14:00 부산국제무용제(868-7881)  <b>소</b> 토요일무대-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b>22</b> <b>중</b> 이안청소년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16:00 무료/김해정(010-2425-5204)	<b>23</b>	<b>24</b> <b>대</b> 제41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b>중</b> 독우회 제46회 정기연주회 '스크리아빈 서거 100주년 기념 피아노 음악의 밤' 19:30 초대/독우회(010-8515-2525)  <b>소</b> 권경민 피아노 클래스 연주회 19:30 초대/권경민(010-2468-1241)	<b>25</b> <b>대</b> ● 봄의 소리 왈츠와 함께하는 2015 부산문화 신춘음악회 20:00 3만원· 2만원· 1만원 부산문화(1600-1803)	<b>26</b> <b>대</b> ● 부산시립극단관현악단 제177회 정기연주회 '대구시립극단과 함께하는 합동 신춘음악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극단관현악단(607-3143)  <b>중</b>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9회 정기연주회 '스페인의 열정'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46)	<b>27</b> <b>대</b>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5 신춘음악회'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54) <b>중</b> 제33회 부산연극제 개막공연 '햄릿'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b>소</b> ● 부산문화회관 예술아카데미-피아니스트 박중화 '간반 위의 이야기' 11:00 균일 2만원/부산문화회관(607-3102~4) <b>소</b> 중남미 음악의 밤 19:30 초대 부산문화회관(607-6065)	<b>28</b> <b>대</b> 리 산차오와 함께하는 100인이 펼치는 플루트의 향연 17:00 2만원·1만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b>중</b> 제33회 부산연극제 개막식 및 개막공연 '햄릿' 17:0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b>29</b>	<b>30</b> <b>중</b>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바문사 '무한각체가역반응'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b>31</b> <b>대</b>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b>중</b>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바문사 '무한각체가역반응'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b>4/1</b> <b>소</b>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여정 '파랑새'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b>4/2</b> <b>중</b>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누리예 '사초'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b>소</b>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여정 '파랑새'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b>3D 문화유산 답사전(아름다운 우리 국토)-대전시실</b> <span style="float:right">전시실</span> 1월 4일(목)-3월 1일(일) 오전 10:30~ 오후 8:00(마감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입 장 료 : 일반 1만 2천원 · 학생(초중고) 9천원 · 미취학아동, 장애인, 경로 7천원 (단체 20인 이상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현장 카드 제시시 20% 할인) 문 의 : 휴먼마커스(607-6230, 070-7617-4004)  <b>제10회 부경서도대전-대·중전시실</b> 3월 7일(토)-3월 10일(화) 문 의 : (사)한국서도협회 부산경남지회(516-5678)  <b>키다리 갤러리 개관 1주년 기념 '키다리 아트페어 인 부산'-대전시실</b> 3월 27일(금)-3월 29일(일) 문 의 : 키다리 갤러리(070-7566-5995)	

〈예술에의 초대〉는 Caffé Bene 카페베네 부산시 전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소** 소극장



# 노래하는 청춘 성악가 **엄정행**

봄이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최고의 애창가곡 '목련화'로 우리가곡의 대중화를 이끈 성악가 엄정행이 3월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를 통해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봄에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청중들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아카데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함께 노래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해 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 2015년 시작과 함께 미국 연주회를 갖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엄정행 선생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열정, 그동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엄정행 노래교실 개설을 흔쾌히 수락했다.

“엄정행 노래교실은 그동안 무대에서 불렀던 많은 노래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작곡가들과 시인들이 전한 노래 사연과 그 노래를 표현하는 방법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엄정행 노래교실은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청아한 음색과 창법으로 한국 가곡 대중화를 이끈 그의 음악 사랑과 연륜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엄정행 선생이 우리음악사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동안 해외 초청 독창회를 비롯한 200회 가까운 독창회, 1,000회가 넘는 음악회에 참가한 그는 1972년 첫 레코드 취입이후 한국가곡과 이태리가곡, 오페리아리아 모음곡 등 22장의 레코드와 10장의 CD 등을 발매하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동안 MBC FM <안녕하십니까, 엄정행입니다>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하며 우리 가곡의 대중화를 이끌기도 했다. 1968년 명동 예술극장에서 첫 독창회를 연 엄정행 선생은 47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무대를 지키고 있다.

양산 출신인 성악가 엄정행 선생은 부산과도 인연이 깊다. 양산중학교 재학중 체육 선생의 권유로 배구선수에 뽑혀 체육 특기생으로 동래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음악교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음악적인 재능을 이어받은 그는 노래도 곧잘 해 운동하는 틈틈이 음악선생님의 특훈을 받으며 진주 개천예술제에 참가해 대상을 받기도 했다. 신장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배구를 포기하고 음악가의 길을 선택한 엄정행 선생은 1976년부터 32년간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제자를 양성하며 교육가로, 성악가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는 정년퇴임 후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로, 고향 양산과 서울을 오가며 다양한 음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엄정행은 고향 양산에 엄정행 음악연구소를 설립하여 ‘엄정행 전국성악



콩쿠르’와 아마추어 여성합창단 연우합창단, 양산 출신 음악인들로 구성된 양산필하닉오케스트라 등을 창단하면서 양산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03년부터 매년 개최. 올해 13회를 맞이하는 ‘엄정행 전국성악콩쿠르’는 젊은 성악가들의 중요한 데뷔 코스가 되고 있다.

“엄정행 성악콩쿠르는 현직 성악인의 이름을 건 유일한 콩쿠르가 아닐까 싶어요. 유능한 젊은이들이 콩쿠르를 통해 기량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년 엄정행 성악콩쿠르를 참가하기 위해 400여명의 음악도들이 양산으로 몰려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콩쿠르 준비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듯 합니다.”

젊은 성악가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는 시간 동안 엄정행 선생은 나이를 잊는다. 데뷔 50주년 기념 무대를 계획하고 있는 그는 노래를 즐기고 싶은 많은 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인생의 보람을 찾아가고 있다.

“나를 품고 길러준 고향 음악계를 위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즐겁지요. 그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이 기다려집니다.”

청바지가 어울리는 노래하는 청춘 성악가 엄정행. 평생 즐겁게 노래하며 봉사해온 그를 통해 인생을 배운다.

# 브레이크인 모짜르트

## Breakin' Mozart

글 김지혜 독일 통신원

모짜르트 음악은 유럽 클래식 음악의 상징으로, 브레이크 댄스는 뉴욕 뒷골목 거리에서 탄생한 언더 그라운드 문화로 대변된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이 두 문화가 과연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까? 독일 출신의 예술 제작자이자, 피아니스트, 오페라 감독인 크리스토프 하겔은 음식으로 치자면 마치 크림 치즈와 김치의 만남처럼 흠-하고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깊은 생각을 해야 할 만큼 시대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장르를 절묘한 퓨전 예술로 탈바꿈 시키는 데 성공했다.



2013년 브레이크인 모짜르트는 크리스토프 하겔의 지휘하에 세계 브레이크 댄스 대회에서 2007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최고 타이틀을 획득한 바 있는 독일 남부 도시인 슈바이푸르트 브레이크 댄스 그룹 DDC 컴퍼니와 함께 탄생했다. 강렬한 비트와 전자 음악에 익숙한 평균 20살 내외의 젊은 비보이 춤꾼들은 모짜르트의 클래식 음악을 접하면서 과거와 현대, 클래식과 힙합, 서로 다른 예술 미학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면서 이들 브레이크인 모짜르트 제작팀은 클래식과 브레이크댄스가 서로 어울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모짜르트의 예술이 재즈, 록, 디스코, 전자 음악, 그리고 브레이크 댄스로 하나가 되는데 이들 젊은 댄서들은 모짜르트가 숨털처럼 부드러움에서부터 광란의 성격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다양한 성격의 예술을 창조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예술적 광기를 브레이크 댄스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1959년 독일 바덴뷔템베르크 주에서 출생한 크리스토프 하겔은 뮌헨, 빈, 베를린, 뉴욕 등 세계 문화의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특히 지휘의 거장 레오나르드 번스타인과 세르기유 첼리비다케로부터 사사를 받았다. 그는 유럽 전통의 교육을 받은 후 오랫동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자유롭게 열정적인 자국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영역을 넓혀가게 된다. 1998년부터 클래식 오페라 '돈 지오바니'를 현대적 감각으로 각색하는데 착수한 그는 2008년에는 베를린 지하철 역인 '국회 의사당 역'이 개장하는 기념으로 모짜르트의 '마적'을 연출했다. 이 때 그는 일반 공연장이 아닌 그 곳 지하철 역을 무대로 하고 출연진들을 오페라 가수가 아닌 록 가수들과 전자 음악들로 대체하는 등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획기적인 크로스 오버 오페라를 연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0년에는 크로스 오버 프로젝트인 '레드 불-날으는 바하'를 제작했는데 이 때 처음으로 바하의 평균율 피아노 작품을 비롯한 건반 음악 작품과 브레이크 댄스를 접목시키는 시도를 해서 세계인들의 갈채를 받기도 했다.

브레이크인 모짜르트 공연팀





브레이크인 모짜르트의 프로그램은 아주 다양하다. 우리에게 '반짝반짝 작은별'로 알려져 있는 피아노 변주곡 부터 마적, 돈 지오바니, 피가로의 결혼 등의 오페라 음악, 레퀴엠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날리는 브레이크 댄스와 어우러진다. 이 고전 음악들의 기본 형태에는 변화가 없지만 때로 힙합 비트가 혼합되기도 하는 등 현대적인 각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감독이 피아노 앞에 앉아 직접 연주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때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으로 직접 비트를 만들어내는 비트박스 연주자가 피아노 옆에서 연주함으로써 모짜르트 음악이 더욱 강렬한 힙합음악으로 탄생된다. 또한 모짜르트 음악의 주요 테마인 사랑, 우정, 배반 등의 내용들이 춤을 통해 다시 부활한다. 이 독특한 퓨전 예술은 독일은 물론 해외 공연에서 티켓 연속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을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독일 역시 클래식 음악계는 불황을 겪고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은 클래식 음악을 고리타분하고 어렵고 보수적인 옛날 음악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크리스토프 하겔과 같은 진보적인 예술가들은 클래식 음악이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을 예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계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짜르트가 귀족과 교회의 요구에 반발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어법으로 서민들의 감정과 생활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처럼 모짜르트는 오늘날 비보이의 모습으로 21세기 독일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것은 상상보다는 직접 공연을 봄으로써 아하-이펙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브레이크인 모짜르트 비보이
- ② 첼발로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는 브레이크 댄스
- ③ 교회에서 비보이 댄스 공연 전
- ④ 브레이크 댄스와 클래식의 만남
- ⑤ 크리스토프 하겔과 브레이크 댄스 팀

베를린 빈터 가르텐 초연  
<https://www.youtube.com/watch?v=heSWo2LjbAU>

모짜르트 반짝 반짝 작은별  
<https://www.youtube.com/watch?v=wSm2vY5wggE>

레드볼-날리는 비하  
<https://www.youtube.com/watch?v=qwMw5gYncGE>

# 박목월 탄생 100주년을 맞으며 국민시인 박목월

글 장윤익 동리목월문학관장 · 문학평론가

올해는 국민시인 박목월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에게 '국민 시인'이란 칭호가 붙여진 것은 그의 시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즐겁게 읽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친근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들이 부르는 '송아지', '뽕꾸기', '흰구름', '노래는 즐겁다'의 동요로부터 '나그네', '윤사월', '청노루', '그리움', '이별의 노래', '수련의 노래', '사월의 노래' 등에서 우리들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가락을 발견한다.



박목월의 문학은 그가 태어나고 자라온 곳과 생활이 연계되어 이뤄진다. 2006년 3월 24일 <동리목월문학관>이 그의 고향 경주에 개관되고, 2014년 6월 17일 생가가 복원되어 관람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밀밭과 야의 시낭송장, 주차장, 정자, 우물과 함께 복원된 생가는 목월이 문학의 꿈을 키우던 유년 시절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 준다.

목월은 1915년 1월 5일 경남 고성에서 부(父) 박준필과 모(母) 박인재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100일 후쯤 본래 집인 경북 경주군 서면 모량리 571로 오게 된다. 출생신고지가 경주이고, 유년시절을 모량 마을에서 보낸 박목월의 기억엔 경주만이 살아 있다. 그는 건천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 대구 계성중학교에 입학한다. 3학년 재학 중 잡지 <어린이>에 동시 '통딱딱 통짜짜'이 실리고, <신가정>에 '제비맞이'가 당선되어 일찍부터 비상한 시재(詩才)가 세상에 알려진다.

정지용 시인이 <문장>지 1939년 9월호, 12월호, 1940년 9월호에 '길처럼', '그것은 연류이다', '산그늘', '가을 어스름', '연류'를 추천하여 박목월은 시인의 길에 들어선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진 좌우의 이데올로기 갈등의 와중에서 그는 1946년 4월 김동리, 서정주, 조지훈 등과 <조선청

년문학가협회)를 결성하여 문학의 순수성을 옹호하는 편에 선다. 그해 6월에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의 합동시집 <청록집>과 <박영종 동시집>이 발간되고, 1957년에 <한국시인협회>가 창립된다. 박목월은 1968년 회장에 취임하여 협회를 크게 활성화 시킨 대표로 평가받는다.

그가 펴낸 시집은 자작시 해설서 <보라빛 소묘>(1958), <난 · 기타>(1959), 동시집 <산새알 물새알>(1962), <청담(晴曇)>(1964), <경상도가랑잎>(1968), <어머니>(1968), <청록집 · 기타>(1968), <박목월시전집> 10권(1973), <무순(無順)>(1976), 유고 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1979) 등이 다. 1968년 시집 <청담>으로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한다.

박목월의 사회적 경력은 해방 전 경주금융조합 서기로부터에서 시작되나, 1945년 대구 계성중학교 교사에 취임하면서 문학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한다. 그 후 이화여고 교사, 서라벌 예술대학,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강사를 거쳐 1962년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에 임용된다. 1976년 인문대학장 재직 중 지병인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난다.

박목월의 시 창작은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대략 10년

단위로 변화를 가진다. 동시로부터 출발해서 '청록파'와 관계를 가진 시기, 향토적 서정과 자연에 몰입한 초기 시, 가정과 생활을 소재로 한 중기 시, 죽음과 이별을 관조한 후기 시, 만년의 기독교 시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박목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리목월문학관>, <목월포럼>, <한양대학교>, <심상사> 등에서 여러가지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동리목월문학관>은 박목월음악회, 동요경연대회, 백일장, 시낭송과 가곡 향연, 박목월 시 100선 시집 발간, 계간 종합문예지 <동리목월>의 특집으로 오세영, 이상호, 김재홍 교수의 '목월의 문학사적 위치', '목월시의 결정판 연구', '목월시의 성격과 시사적 의미'의 기념 논문을 수록한다.

박목월 선생 제자들의 모임인 <목월포럼>은 '박목월의 시와 인간', '뮤지컬 박목월'을 공연하고, 그가 재직했던 한양대학교는 '학술세미나', '박목월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가 창간한 시 전문지 <心象>은 박목월 시 공원의 조성과 육필시집 간행에 신경을 쏟고 있다.

월간지 <예술에의 초대>가 기획한 <불멸의 거장>에서 박목월을 초대한 것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6회로 연재되는 '국민시인 박목월'은 우리 문학사에 새로운 조명의 글로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글쓴이 장윤익은 경북 경주 출생으로, 1972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 인천대학교, 경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한국문인협회, 국제펜 한국본부 고문, 한국문학관 협회, 통일문화포럼 회장, 국제어문학회, 한국어문학회, 구리파한국학회(AKSE), 일본사회문학회 회원, 동리목월문학관장 · 동리목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있다. 한국평론가협회상, 조연현문학상, 한국예술발전상, 경상북도문화상, 경주시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문학평론집 <문학이론의 한장>, <북방문학과 한국문학>, <열린문학과 닫힌문학>, <지방화시대문학의 문학>, 회고록 <산 넘고 물 건너> 외 다수가 있다.





# 침체된 주택가의 작은 변화

## - 마로인 사옥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최근 10여 년 사이 부산의 업무지구로 급부상한 곳이 센텀시티이다.

영화의 전당을 비롯한 문화 시설과 백화점 등 상업 시설들이 들어서며 업무, 상업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고, 뒤를 이어 여러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이 들어서며, IT업체, 영상 관련 업체 등이 입주하였다. IT업체의 벤처 기업으로 이곳에 입주해 있던 '마로인'은 미성숙한 센텀시티의 기형적 아파트형 공장에서 떠나 오랜 기간 주거지로서 맥을 이어 오고, 개발에서는 빗겨나 있는 '민락동'으로 사옥을 옮기기로 하였다. 민락동은 수영구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쪽은 광안동, 북쪽은 수영동, 남쪽은 수영만, 동쪽은 수영강을 경계로 해운대구와 접해 있다. 민락(民樂)은 여민동락(與民同樂), 여민해락(與民偕樂)의 준말로 임금은 즐거움을 홀로 차지하지 않고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인데, 이곳은 경치가 좋아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옛 지명으로는 보리전, 널구지, 진조말(眞鳥末) 등이 있었다. 이곳에는 백산 북쪽의 '보리전' 마을과 백산

남쪽의 '널구지' 마을 등 2곳의 자연마을이 300년 전부터 있어 왔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널구지 마을을 평민동(平民洞)이라고 했고, 보리전 마을을 덕민동(德民洞)이라고 하였다. 이 두 마을을 합치면서 민락동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도 한다.

### 변화의 조그마한 불씨

백산의 남쪽은 부산MBC사옥이 자리하고 있고, 개발의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민락동 매립지와 민락수변공원이 있다. 백산의 서측 민안초등학교 근처에 자리한 마로인 사옥의 대지는 1970~80년대의 주거지의 모습을 갖고 있다. 대지의 앞으로 흐르는 좁은 2차선 도로가에는 2층 전후의 소규모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후면은 2, 3층의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가로를 면한 마로인 사옥은 매스(건물의 덩어리)와 벽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4층 규모로 아담하게 와 닿는다. 1층은 임대 공간으로 가구 업체가 있고, 2층부터 4층은 사옥으로 계획돼 있다. 2층은 업무공간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3층은 고객 지원부서가, 4층은 임원실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자인 오신욱<sup>2)</sup> 건축가는 "주변이 침체되어 있는 가로변과 벤처기업으로써 도전적 기업 이미지를 위해 띄워져있는 볼륨과 매끈한 표면을 이용하여 주변과 차별되는 장소를 만들고, 그 장소를 시작으로 가로가 변화될 수 있는 조그만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였다"라고 말하듯 마로인 사옥은 침체된 주택가의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 벽의 이중성

건축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 평면적 형태를 갖추고 입체적 형태로 변하며 공간적 입체감을 갖춘다. 입체적 형태를 갖추는 기본적 요소는 벽이라고 할 수 있다. 벽은 유리 등의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외부 공간을 내부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기도 한다. 마로인 사옥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벽이다. 2, 3층에 띄워져서 매달려 있는 백색의 벽, 그리고 4층의 전면의 벽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벽들은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다. 2, 3층의 벽은 하늘과 땅으로는 열려 있고 수평적 시선은 닫고 있다. 4층의 벽은 전면은 닫고 있고 좌우와 하늘은 열려있다. 이는 IT업체라는 공간 사용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 같지만 건축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닫힌 것 같으면서도 열린 벽으로 만들고 있다. 빛의 우물과 같이 하늘로 뚫린 벽은 빛을 순화시키며 입체



- 1 하늘과 벽의 중첩. ©윤준환
- 2 빛의 반사판이 되기도 하고 영상 프로젝터의 스크린이 되기도 하는 벽. ©윤준환
- 3 마로인 사옥 전경. ©윤준환

적으로 공간에 와 닿는다. 벽은 빛의 반사판이 되기도 하고 영상 프로젝터의 스크린이 되기도 한다. 3층과 4층에서는 하늘과 벽이 중첩되며 외부공간과 내부 공간을 입체적으로 와 닿으며 벽의 이중성을 확연히 느낀다. 순백색 벽과 회색의 노출 콘크리트의 매스는 각층의 테라스와 어우러지며 볼륨감을 갖고 내부 공간을 입체적으로 들어내고 있다.

건축과 도시는 생명체와 같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되어 나간다. 마로인 사옥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마주친 주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변화의 불씨를 볼 수 있었다. 1970, 80년대를 걸쳐 형성된 탁한 적벽돌과 페인트로 이루어진 주변 가로의 건물 중 몇몇은 순백색 페인트로 바꾸어 칠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건축의 유전자는 주변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물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든다.

### 1) 아파트형공장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안에 6개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조업 공장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서울 구로단지의 재개발을 선두로 많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으나, 공장의 형태는 사라지고 고급 업무시설로 변질 되었다. 2010년 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이 추가되어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꾸었다.

### 2) 오신욱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설계과정에서 스키마(schema)의 의미와 작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건축가 노정민과 라움(Raum)을 설립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마스터플랜 현상설계에 당선되었고, S1, 청도어린이도서관, 반쪽집, 아이누리 아트센터, 마로인 사옥, 아트스페이스 라움 등 다수의 작업을 하였다. 타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과 다양한 전시를 통해 공간실험을 병행하며, 현재 동아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2013년 부산 신인 건축가상을 수상하였다.



## 전국 최초 삼국시대 생활사 박물관 정관박물관

1천 700년 전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삼국시대 사람들의 당시 생활상을 생생하게 재현한 삼국시대 생활사 박물관이 전국 최초로 정관에 문을 열었다. 지난 1월 26일 개관한 정관박물관이 바로 그 곳으로, 정관 신도시 조성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던 지난 2005년, 가동마을에 삼국시대 마을이 통째로 발굴되면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정관박물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가동유적에서는 집터 150동을 비롯해 습기나 짐승의 습격을 피해 평지보다 높게 지은 고상창고 73동, 저장구덩이 23기, 가마 1기, 무덤 18기 등 유적,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가동마을 유적 외에도 현재 정관박물관에는 해운대와 울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발굴된 청강리, 대라리 유적과 철마면 고촌리에서 출토된 유물 등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소두방공원에 자리한 정관박물관은 상설전시실 외에도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실, 야외전시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층에 자리한 상설전시실은 가동마을에서 발견된 4~5세기 삼국시대 마을터를 복원한 '소두방의 생활', 신도시 개발로 사라진 정관의 10개 마을 역사를 담은 '소두방의 기억' 등 두 가지 테마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서 '소두방'은 정관의 옛 지명. '솔뚜껍'의 경상도 방언으로, 부산의 옛 지명 '가마골'처럼 솔뚜껍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삼국시대 정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소두방의 생활'관은 '집' '음식' '생활' '신앙' '무덤'이라는 주제로 출토유물을 통해 당시 주민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재현해 놓고 있다. 실제의 가동유적 36호집을 복원시킨 전시공간을 시작으로 용수리 고

분군에서 출토된 집 모양 토기, 가동유적 사람들이 사용한 그릇과 먹었던 음식, 곡식과 식량을 저장하던 저장구덩이와 고상창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연장과 악기, 나무신발, 그리고 삼국시대 사람들이 신성히 여겼던 새 모양 토기와 부장용 토기, 용수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관갑옷까지 주제별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기장지역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다양한 무덤을 복원시킨 '영원한 안식처-무덤'관에서는 죽음과 매장, 제사 의례를 다룬 샌드애니메이션 영상을 함께 상영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소두방의 생활'관과 마주한 '소두방의 기억'관은 신도시 개발로 고향을 떠난 주민들의 기억

을 재생하기 위한 공간으로 신도시 이주민들에게는 마을의 풍경과 역사를 소개하고, 원주민에게는 고향의 옛 정취를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바닥에 그려진 지도에 표시된 10개 마을의 버튼을 누르면 마을 대표들이 영상으로 출연해 마을의 역사와 전통, 자랑거리를 소개한다. 이밖에도 전시관에는 정관의 유래와 역사, 정관 출신 인사들의 항일정신과 기개를 소개하는 '나라를 구하다', 정관의 교육, 정관의 문화재, 소두방의 옛길 등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3층 야외 전시공간으로 나가는 입구에 자리한 어린이 체험실은 참여와 놀이를 통해 역사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문화공간이다. 삼국시대 다양한 생활상을 그려낸 귀여운 벽화가 시선을 사로잡는 어린이 체험실은 재미있는 게임과 조립,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박물관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삼국시대 의상을 입고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그림자놀이극을 통해 전래동화를 감상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앞으로는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 박물관 뒤편에 조성된 야외 전시공간은 실제로 관람객들이 마을 속으로 들어가 삼국시대의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느껴 볼 수 있도록 청강리·대라리 유적 등에서 발굴된 살림집과 작업장, 망루, 고상창고, 우물 등을 복원해놓고 있다.

개관 채 한달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입소문이 나면서 정관박물관은 지역주민을 비롯해 하루 수백 명이 찾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몰리면서 주말에만 6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1월 1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관박물관 720-6900



# 연제구 알리는 문화사절단

## 연제구 여성합창단

오전 10시가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 조용하기만 하던 연제구청 강당이 밝은 인사 소리로 가득 찬다. 화요일인 2월 10일은 연제구 여성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는 얼굴이지만 반갑게 인사하는 단원들의 얼굴은 그들이 빛어내는 앙상블 만큼이나 정겹다.



연제구 여성합창단은 지난 2013년 9월,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지휘자 황장수 씨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힘차게 첫발을 내딛었다. 파트별 오디션을 거쳐 선출된 38명의 단원들은 매주 화요일 연제구청 강당에서 연습을 가져오고 있다. 연습시간이 오전이라 단원 대부분이 주부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단원 반 이상은 직장인들이다.

결성 3년째이지만 기량만큼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출발 당시 단원들이 합창단을 지키고 있어 그만큼 화합도 잘된다. 음악에서 하모니가 제일 중요하듯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원들의 화합과 배려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연제구 여성합창단이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는 지금까지 단원들을 이끌어온 지휘자 황장수 씨의 역할이 크다. 수년간 합창단을 지도했던 노하우로 단원 개개인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짧은 기간 내에 연제구 여성합창단을 실력있는 합창단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단순히 노래만을 배우고 부르는 시간이 아닌, 음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도 병행하면서 합창을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여성합창단은 연습을 시작한지 4개월 만에 가족음악회를 통해 본격적인 연주활동에도 나섰다. 지난해는 2014 연제구청 시무식 무대를 시작으로 온천천 음악회, 연제구 체육관 개관 기념무대 등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는 3월 2일 연제구 개청 축하음악회를 시작으로 4월에는 연제구 여성합창단을 알릴 수 있는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연제구의 이름을 내건 만큼 연제구를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겠다는 황장수 지휘자는 연제구 내에 있는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을 찾아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도 가져나갈 계획이다. 또, 연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우리 이웃을 찾아가는 다양한 무대도 계획하고 있다.

연제구 여성합창단은 올해부터 부산합창제, 부산국제합창제 프린지 콘서트 등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경연대회에도 적극 찾아나설 예정이다.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통해 실력을 검증받고 단원들의 의욕을 높여준다는 황장수 지휘자는 평소에도 무반주 합창 연습을 따로 갖는 등 실력쌓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지난해 가졌던 공연에서는 갑작스런 음향사고에도 반주없



이 무사히 공연을 마치면서 관객들로부터 더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남편의 권유로 합창단에 가입한 단원이 거의 절반일 정도로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집안일, 직장일로 바쁜 와중에도 출석을 만큼은 어느 합창단에 뒤지지 않습니다.”

현재 연제구 여성합창단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하진 씨는 단원들의 화합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한다. 지난해 가족음악회를 통해 가족들에게 실력을 뽐내면서 합창단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그는 올해 4월 정기연주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연제구 이름을 걸고 의욕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김하진 회장은 연제구청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해본다. 소프라노 파트장을 맡고 있는 서봉천 씨는 아파트 공고문에 붙여진 모집공고를 본 남편의 권유로 합창단과 인연을 맺었다. 원래 성악을 전공한데다 다른 합창단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어 합창단 활동에 누구보다 열심이다. 우쿨렐레 연주도 수준급이라 무대 공연이 있으면 다른 단원들과 함께 우쿨렐레 연주도 선보인다는 그는 그래서 연제구 여성합창단 공연에는 언제나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자랑한다.

직장인 양지원 씨는 바쁜 와중에도 연습시간만은 빼놓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바쁜 일이 있으면 잠시라도 왔다 갈 정도로 합창단 활동에 열심이다.

“아무래도 직장을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합창단 활동으로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죠. 합창 연습이 있는 화요일은 힐링하는 날입니다.”

연제구 여성합창단은 3월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연제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_연제구여성합창단 665-4064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매암차박물관

5월 8일(금)

## 하동 오감여행

지리산 국립공원과 맑고 푸른 섬진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청정 하동으로 떠나는 봄 여행.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 평사리 최참판댁, 하동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차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매암차박물관'에서 오감여행을 즐긴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하동 도착, 평사리 최참판댁, 평사리문학관 방문
- 12:00 중식
- 13:00 매암차박물관 제다 체험
-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 3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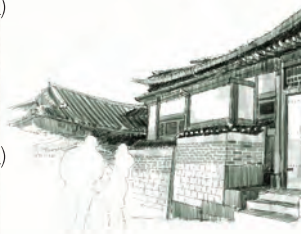
- 강영옥(수영구 황령대로)
- 공미경(수영구 무락로)
- 김경숙(금정구 식물원로)
- 김성덕(사상구 방정로)
- 김영옥(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 김주원(남구 용호로)
- 성은경(해운대구 달맞이길)

- 신정애(수영구 수영로)
- 황정원(동래구 온천천로)

#### 기존 회원

- 남순옥(연제구 법원북로)
- 문정임(남구 황령대로)
- 박진욱(사하구 괴정로)
- 서지수(북구 양달로)

- 윤지선(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이기희(금정구 남산로)
- 이석희(남구 석포로)
- 정정숙(금정구 금강로)
- 최지은(금정구 부곡온천천로)
- 한지영(부산진구 양지로)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으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 부담)

- | 신청방법 | 엽서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607-3100)



- 28\_ 프리뷰
- 34\_ 리뷰
- 36\_ 프로그램 가이드
- 54\_ 새로 나온 음반
- 55\_ 새로 나온 책

###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영화의전당   780-60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금정문화회관   519-5651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3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차성아트홀   723-7203
동래문화회관   550-6611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수아트홀   744-1415	청춘나비스극장   070-8241-2560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가온아트홀   1600-1602	소민아트센터   991-1100	초콜릿팩토리   621-4005
부산문화회관   1607-6051~5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숨사탕아트홀   922-4545	한결아트홀(구, 가마골소극장)   1588-9155
부산북구문화방송센터   309-4087	공간소극장   611-8518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AN아트홀   758-9035
부산시민회관   630-5200	글로벌아트홀   505-5995	아트카페 움   557-3369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디코소극장   464-1996	액티스소극장   611-6616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KBS부산홀   620-7181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무대공감   623-0678	열린아트홀   527-0123	LIG아트홀   1544-392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용천지탈소극장   612-4312	MBC롯데아트홀   1688-8998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미리내소극장   504-2544	SM아트홀   1600-1602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8회 정기연주회 리신차오와 부산시향의 '거인'

3.10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존 오코너

지난 1월 신년음악회로 2015년 힘찬 출발을 알렸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3월 10일 제508회 정기연주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을 찾아간다. 2015년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 수석지휘자 리신차오가 지휘하고 '자유로운 감성의 피아니스트' 존 오코너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과 말러 음악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작품으로 알려진 교향곡 제1번 '거인'을 들려준다.

첫 곡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으로 부산관객과 만나는 피아니스트 존 오코너는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떨쳐온 아일랜드 출신의 피아니스트로, '쇼맨십과 고난도 기교를 능가하는 내면적 표현과 분위기를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을 살려냈다(시카고 트리뷴)', '섬세한 기교와 음악성, 더 이상의 연주는 없다(런던 선데이 타임스)', '그는 관중을 사로잡는 흡입을 때 없는 터치를 선사하는 아티스트다(워싱턴 포스트)' 등 평론가들로부터 다양한 호평을 받았다.

지난 1973년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만장일치로 우승하며 세계무대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존 오코너는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카네기홀을 비롯한 각 지역의 유명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가져왔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피아노 교수로 인정받고 있는 그는 세계적 명성의 피아노 콩쿠르 심사위원 및 세계 주요 음악 교육기관 마스터클래스와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세대 연주자들을 발굴해내고 있다.

그가 들려주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은 1785년 작곡된 모차르트 3개의 협주곡 중 두 번째 작품으로, 모차르트의 가장 행복했던 시기이자 창작열이 왕성했

던 시기에 작곡되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다. 모차르트 자신이 직접 초연한 이 곡은 기존의 협주곡 영역을 탈피해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교향악적으로 하나가 되는 충실한 편성으로 관현악법을 전개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밝으면서도 감미롭다.

(연주시간 28분)

지난 2011년 말러 서거 100주년 기념 음악회 이후 오랜만에 말러 교향곡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말러가 20대였던 1888년 작곡된 작품으로 화려하면서도 서정적인 표현, 그리고 강렬한 정열을 느낄 수 있는 교향곡 제1번 '거인'을 들려준다. 제목인 '거인'은 당시 그가 심취해있던 독일의 낭만파 작가 장 파울의 시 '거인'에서 본뜬 것으로, 2악장씩 나누어 제1부 '젊은이, 미덕, 결실, 고뇌 등의 나날로부터', 제2부 '인간의 희극'이라는 주를 달았으나 작품 전체가 가요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 제목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주시간 50분)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54

# Preview

## 부산시립무용단 춤추는 동화 클라라와 호두이야기

3.11(수)-13(금), 16(월)-20(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우리춤의 매력을 전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춤추는 동화 '클라라와 호두 이야기'가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춤추는 동화'는 지난해까지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어린이 관객들에게 사랑받은 무대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무로 큰 인기를 모으면서 매년 매진사례를 날기도 했다.

'춤추는 동화' 2015년 무대는 세계적인 명작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우리 정서에 맞게 재구성한 '클라라와 호두이야기'. '호두까기 인형'에 우리의 전래동화 '청개구리 이야기'를 각색한 '클라라와 호두'는 무엇이든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그린 작품이다.

극이 시작되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엄마 청개구리가 등장해 무엇이든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어린이 친구들에게 들려준다.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클라라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크리스마스날 선물 받은 호두인형을 받고 잠이 든 클라라가 등장한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책 속으로 들어간 클라라와 호두가 청개구리 마을로 가게 되고 죽어버린 엄마 청개구리를 살리기 위해 클라라와 호두는 객석 어린이들과 함께 힘을 모은다. 마지막 무대는 관람온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무대로, 깨어난 엄마 청개구리를 받기며 다함께 춤을 추며 막을 내린다.

이번 무대에서 주인공 클라라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공주, 호두는 단원 최의옥,

엄마 청개구리는 부수석단원 권봉정, 청개구리는 김시현, 박미나가 맡아 춤으로 읽는 동화세상을 펼친다.

### 프로그램

- 에피소드 1 : 다함께 노래를 부르며~~
- 에피소드 2 : 클라라의 크리스마스 선물
- 에피소드 3 : 책 속으로 들어간 클라라와 호두
- 에피소드 4 : 깨어난 엄마 청개구리
- 안무/홍경희(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입장료 균일 1천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45

## 부산시립합창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봄, 그리움, 그리고 사랑

3.13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오세종



부산시립합창단

지난 2월 12일 제155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우리민요와 세계민요, 팝, 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한 부산시립합창단이 봄의 길목에서 새봄의 설렘을 담은 다양한 합창곡으로 또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봄,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펼쳐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오세종의 지휘로 합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즐거운 합창의 세계로 안내한다.

1부에서는 혼성과 여성, 남성으로 대비되는 다양한 합창세계를 만날 수 있다. 우선 혼성합창에서는 고려가요 ‘가시리’를 현대적으로 창작한 ‘가시리’(조혜영 곡)를 비롯해 ‘어머니’(오병희 곡), ‘아버지 빈뜰’(임채일 곡) 등 신작가곡을 만날 수 있다. 이어지는 여성합창에서는 ‘떨리가는 물’(류형선 곡), ‘사랑한다는 말’(김미선 곡)과 김소월 작시 ‘엄마야 누나야’(이영조 곡), ‘팔배개의 노래’(이근택 곡)를 통해 화려한 여성합창의 맛을 느낄 수 있다. 1부 마지막 순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남성 단원들이 펼치는 무대로, 가요 ‘방랑자’, ‘하숙생’, ‘제비처럼’ 등 친숙한 가요를 중후한 남성합창으로 즐길 수 있다.

우리 합창곡으로 꾸며졌던 1부 무대에 이어 2부 무대에서는 세계합창곡과 흑인영가를 혼성합창으로 만날 수 있다. ‘Arroz con Leche(우유 섞은 밥)’(Carlos Guastavino 곡), ‘Lullaby(from three Nocturnes, 자장가)’(Daniel Elder 곡), ‘Sure this shining night(Nocturnes, 별빛 찬란히 빛나는 밤에)’(Morten

Lauridsem 곡), ‘The promise of living(from the Tender Land, 삶의 약속)’(Aaron Copland 곡)에 이어 2부 마지막 무대로 흑인영가 ‘Keep your Lamps(등불을 지켜라)’(André Thomas 편곡), ‘Amazing Grace(놀라운 은혜)’(Keith McCuchen 편곡), ‘Ride on, King Jesus(왕이시여, 오르소서)’(Moses G. Hogan 편곡)을 들려준다.

- 지휘/오세종
- 반주/이승윤, 이경미

입장료 R석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42

# Preview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7회 정기연주회 대구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합동 신춘음악회

3.26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김철호



지휘 유경조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전해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가 3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신춘음악회는 지난해 창단 30주년을 함께 맞아 30주년 기념 교류음악회를 가졌던 대구시립국악단을 초청, 합동무대를 통해 화려하면서도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1부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는 유경조가 지휘하는 대구시립국악단이 연다. 첫 곡은 국악관현악을 위한 ‘도약(조석연 곡)’. 도약을 향한 우리의 꿈을 곱살맛있게 신나게, 고뇌와 발전을 위한 상념의 시간들을 리드미컬한 연주로 풀어낸다.

이어지는 무대는 성악과 국악관현악 ‘새타령, 밀양아리랑(조두남 곡, 이정호 편곡)’으로, 우리의 전통국악 선율을 모티브로 작곡된 성악곡을 소프라노 류진교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다. 계명대학교 음악대학과 이태리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및 아르츠 아카데미(Diplom), Milano Masate Donizetti(연주학박사)를 졸업한 류진교는 현재 대신대학교 교수로 있다.

1부 무대의 마지막 곡은 경기도당굿 장단에 의한 타악협주곡 ‘불꽃(이정호 곡)’. 경기도당굿 타악장단 바탕에 경상도 메나리토리와 전라도 육자배기토리 선율로 구성되어 영, 호남지역과 서울 경기지역을 아우르는 ‘불꽃’을 대구시립국악단 타악연주자들이 신명넘치는 무대로 선사한다.

2부에서는 수석지휘자 김철호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무대가 이어진다. 첫 곡인 관현악곡 ‘꿈의 바다(정동희 곡)’는 부산 바다의 역동성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 나누어 표현한 곡으로, 전통적인 한국음악 어법을 토대로 서양음악의 화성적, 대위적, 반음계주의적 어법을 과감히 수용해 국악의 현재성을 지향한 작품이다.

안도현의 시 ‘연어’를 읽고 느낀 감흥을 표현한 비파협주곡 ‘연어(정동희 곡)’는 원곡인 가야금 독주곡을 비파 중주곡으로, 다시 비파 협주곡으로 작곡한 곡으로, 비파 연주가 정영범, 한수진이 부산 초연으로 들려준다. 비파연주팀 비화랑 단원으로 활동중인 정영범, 한수진은 그동안 청사국악관현악단,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경기도립국악관현악단, 안산시립국악단, 세종국악관현악단 등과의 협연무대, 2013년 KBS국악한마당, 2014년 주한중국문화원 정기연주회,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한 바 있다.

마지막 무대는 역시 부산초연으로 들려주는 본풍류와 별풍류의 만남 ‘산조합주와 관현악 풍류(조원행 곡)’. 시나위, 풍류 등 전통적 연주형태와 관현악, 협주곡 등 현대적 연주형태를 대비시켜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본(本)과 별(別)이 만나는 현대판 풍류를 재현한다.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43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5 신춘음악회

3.27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리 신차오



싱그러운 새봄의 기운을 경쾌한 왈츠로 느껴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5 신춘음악회'가 3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폭넓은 레퍼토리에 대한 탁월한 해석과 천재적인 감각, 신선한 열정으로 인상 깊은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생동하는 봄에 어울리는 '빈 왈츠'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음악가문인 슈트라우스의 왈츠와 폴카로 꾸며진다. 슈트라우스 가문은 아버지 요한 슈트라우스 1세를 비롯해 장남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차남 요제프 슈트라우스, 삼남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 등 가족 모두가 빈, 바르츠바 등에서 이름을 얻은 음악가족이다.

'왈츠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는 '빈 왈츠'의 형식을 확립한 작곡가이자 지휘자, 바이올린 연주자로, 1825년 자신의 악단을 조직해 유럽 각지에서 연주회를 가지면서 이른바 '빈 왈츠'를 전 유럽에 널리 전파시켰다. '왈츠의 왕'으로 불리는 장남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아버지인 슈트라우스 1세의 반대에도 몰래 바이올린과 작곡법을 배웠고, 19세 때 돔마이엘 레스토랑의 관현악단 지휘자로 취임했다. 1849년 부친이 사망한 후 그 악단을 합병해 유럽 각지를 순방하며 명성을 높였던 슈트라우스 2세는 이후 작곡에 전념, 독자적인 왈츠 양식인 '연주회 왈츠'를 탄생시키며 500곡이 넘는 왈츠와 폴카를 작품으로 남겼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차남이자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동생인 요제프 슈트라우스는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 설계사로 활동하던 중 1853년 형의 부탁으로 악단을 맡으면서 얼떨결에 사교계에 데뷔, 이내 형의 명성에 버금가는 작곡가로 사랑받았으며, 시적이면서도 감수성 넘치는 곡들로 당시 젊은층이 선호하는 작곡가로 꼽히기도 했다.

슈트라우스 가문의 대표곡들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시작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박쥐' 서곡, '집시남작' 서곡, '새 피치카토' 폴카, 무궁동, '예술가의 생애' 왈츠, '천둥과 번개' 폴카, 요제프 슈트라우스 '천체의 음악' 왈츠를 들려준다.

신기(神技)에 가까운 관현악법으로 교향시 분야에 최대 업적을 남긴 독일 후기 낭만파의 마지막을 대표하는 대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도 이번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메타모르포젠'은 리하르트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바라보며 전쟁에 대한 비참한 마음을 느린 템포의 악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54

# Preview

## 2015 제33회 부산연극제

3.27(금) -4.12(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청춘나비 아트홀



2014 부산연극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배우창고 '가가가 오신다'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부산연극제 2015년 무대가 3월 27일부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청춘나비 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한 부산연극제는 창작초연작들의 경연무대인 'IN부문',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OFF부문', 부산시민이 만들어가는 '부산시민연극제'로 풍성하게 펼쳐진다.

올해 부산연극제 'IN부문'은 모두 9개 극단이 참가한다. 지난해에도 참가했던 극단 더블스테이지, 극단 누리에,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극단 이그라, 극단 이야기, 극단 하늘개인 날 등 6개팀 외에도 극단 맥, 극단 시나위, 극단 도깨비가 새롭게 도전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신인 연출자가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연륜을 겸비한 관록의 연출자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IN부문'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은 올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펼쳐지는 제33회 전국연극제에 부산대표로 참가, 전국 17개 시도의 극단들과 다시 한번 경연을 펼친다.

전국의 극단이 참가하는 소극장 연극축제로 자리매김한 'OFF부문'은 올해부터 부산의 독립운동가이자 예술가로 이름을 떨친 故 한형석과 부산을 대표하는 배우 전성환의 이름을 부친 우수팀 시상제도를 신설했다. 'OFF부문'은 예년보다 더 많은 극단이 참가해 소극장 연극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OFF부문'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극단 불의 전차 '행성의 진화초기 단계, 불확실한 미래'를 비롯해 극단 여정 '파랑새',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고도, 없다!',

극단 자유바다 '전설의 박도사를 불러라', 끼리프로젝트 '욕하고 싶은 날' 등 모두 5작품. 이밖에 4월 3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는 부산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산시민연극제가 펼쳐진다.

올해 부산연극제는 본격 경연에 앞서 27일 프로젝트팀 이들의 연출가 김지용이 연출을 맡은 개막축하공연 '햄릿'으로 그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개막식은 3월 28일 오후 5시, 시상 및 폐막식은 4월 12일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 일정

- 개막축하공연 '햄릿'
- 3월 27일(금) 오후 7:30, 28일(토) 오후 5: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개막식
- 3월 2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시상 및 폐막식
- 4월 12일(일)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2만원  
(부산시민연극제 무료, 사전 예매시 할인)  
**문의**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부산시립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 민요와 애창곡의 향연

음악평론가 박진홍

“아! 참 좋다!”

짧은 감탄사와 그에 딸린 지극히 주관적인 평어. 평론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지만, 사실 이 만큼 음악이 주는 감동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또 있을까.

지난 2월 1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제155회 정기연주회가 수석지휘자 오세종의 지휘로 열렸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음악회로 마련된 이날 무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민요와 가요들로 가볍고 편안하게 구성되었다.

연주회 리뷰를 쓰기 위해 객석에 앉은 필자의 뒤에서 스테이지마다 들려오는 한 중년 여성 관객의 감탄사가 필자로 하여금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들게 했다. 레퍼토리의 구성, 신년음악회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보다 음악에 마음을 빼앗겨 음악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에 탐닉함으로써 결국 터져 나오는 한 마디.

“아! 참 좋다!”

부산시립합창단은 2015 신년음악회를 참 좋은 연주회로 만들었다. 웅장함과 기교, 섬세함과 예술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담백하고 맛깔나게 준비한 소박한 연주, 그래서 더 편안하게 마음과 귀가 열리는 음악회였다고 생각된다.

이날 연주는 총 네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었다. 첫 스테이지는 여성 합창으로 박창호 편곡으로 〈The Hawaiian Wedding Song〉, 〈When I Dream〉,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친구여〉 등과 같이 친숙한 곡들이 연주되었다. 하늘거리는 한복을 입은 선녀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입장했다. 부드러우면서도 아늑한 여성 성부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무대였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남성합창으로 독일 민요인 〈소나무여〉, 미국 민요 〈철로공사〉, 러시아 민요 〈망망 대 초원〉을 들을 수 있었다. 조화로운 밸런스 조절과 화음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는데 남성 합창이 주는 중저음의 무게감과 볼륨감이 앞선 여성 합창의 분위기를 넘어서 조금 더 열기를 느끼게 해 주었다.

이어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혼성 합창으로 전경숙 작, 편곡의 〈새야 새야〉, 조우현 편곡의 〈밀양 랩소디〉, 그리고 〈정선 아리랑〉 등의 우리민요가 새로운 옷을 입고 무대 위에 올랐다. 전통 민요의 바탕 위에 현대적인 화성적 색채와 하모니를 입힌 음악들이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통해 분위기를 클라이맥스로 끌어 올렸다.

마지막 스테이지는 최석태의 편곡으로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와 〈봄의 소리 왈츠〉가 장식했다. 슈트라우스의 왈츠는 세계적으로 신년음악회에서 많이 연주하는 레퍼토리이다. 왈츠의 흥겨운 분위기와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에 흥을 돋우어 주었다.

앵콜로는 지휘자 오세종의 ‘오, 아름다운 밤이예요’라는 위트 있는 말과 함께 브람스의 〈O Schöne Nacht〉가 연주되었다. 맑고 고운 음성과 차분하고 안정된 화성이 관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이날 연주 전반에 흘렀던 분위기를 잘 모아 짙은 마침표로 가장 적당한 곡 중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이번 부산시립합창단의 신년음악회는 기승전결이 잘 짜여진 레퍼토리 구성이나 안정적인 음색과 화성 진행을 생각하기에 앞서 정말 참 편안하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편안하게 2015년과 관객들의 마음의 문을 연 부산시립합창단의 다음 연주가 기대된다.



지역 성장을 이끌어내는

## 지역 탐방 프로그램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남인용



〈신대동여지도〉는 채널A에서 2013년 8월에 처음 방송된 후 70회를 넘기며 매주 방송되고 있는 전국 탐방 프로그램이다. 새로 기획되어 첫 방송을 내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사라져 가는 프로그램이 수없이 많은 종합편성채널에서 1년 반을 지속해 온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신대동여지도〉는 여행, 음식, 경제라는 다양한 주제를 각각의 코너에 골고루 담아 표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치와 우리 국민의 정감 어린 생활 모습을 풍부하게 전해준다.

〈신대동여지도〉는 세 개의 코너로 구성된다. 〈윤택한 여행〉에서는 개그맨 윤택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기적의 건강밥상〉에서는 평소 먹던 음식으로 중병을 고치는 건강에 좋은 밥상을 찾아내고, 〈시골사랑산다〉에서는 시골에서 성공한 고수들의 성공 스토리를 담아 시골에서 돈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신대동여지도〉의 장점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탐방 프로그램이 대부분 갖고 있는 단점 또한 적지 않은 편이다. 〈신대동여지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탐방 프로그램의 제작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크기가 작아서 각 지역별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는 나라이다. 나라의 크기가 클수록 각 지역별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국민들이 지역별 공통점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고, 나라의 크기가 작을수록 각 지역별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각 지역별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작은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맞추어 각 지역별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 각 지역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일수록 공통점이 많다. 공통점이 많은 인접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타당한 면이 있다. 작은 단위의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모아서 통합 브랜드를 위해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지역 탐방 프로그램이 지역의 통합과 화합을 통해 지역 통합 브랜드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각 지역별 특색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각 지역 브랜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축하고 일관되게 홍보하는 장기지향성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은 단기적인 수입 증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지역 브랜드가 장기적인 전망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브랜드에 대해 꾸준하게 다루어 온 각 지역의 교육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유익하다. 이제까지 방송이 보여주는 고향은 쉬고 가고 놀고 가는 곳이었고 〈신대동여지도〉가 보여주는 고향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향이 휴식과 오락이 공간이 아니라 인재가 성장하고 충실하게 산업을 발전시키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성장의 장기지향성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신대동여지도〉는 일반인의 생각보다 농촌 생활의 수준이 높다는 점과 도시보다 장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장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점이 많기 때문이다. 농촌이 도시보다 정말 살기 좋다면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적을 수는 없다. 탐방 프로그램에서 농촌 생활의 장점을 강조하여 있는 문제를 없애는 것처럼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면 한다. 농촌이 돈 벌 기회가 많고, 의료 시설이 풍부해지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많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방송이 기여해야 한다. 도시가 도시대로 농촌이 농촌대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생과 화합의 대안을 우리나라의 탐방 프로그램들이 찾기를 기대한다.

## 내츨러리 세븐 내한공연 in 부산

일 시 | 3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천원  
A석 5만 5천원, B석 3만 3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지니콘텐츠 02-568-8831

...

드럼, 기타, 베이스 등 밴드 악기 사운드를 인간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보컬 플레이어 그룹 내츨러리 세븐(Naturally 7) 부산공연.

내츨러리 세븐은 1999년 형제인 로저 토마스와 워렌 토마스가 '드럼을 갖고 싶다'는 열망으로 목소리로 드럼을 표현하는 방법을 창조해 내면서 다른 멤버들과 함께 목소리를 악기의 도구로 개발, 독특한 음악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내츨러리 세븐은 파리 지하철에서 부른 'Feel it' 영상으로 일약 유튜브 스타로 떠올랐고 재즈 팝의 황태자 마이클 부블레 월드투어의 스페셜 오프닝 게스트로 출연,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부산시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다른 피

일 시 | 3월 2일(월)~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극단(607-3148)

...



현실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담은 진지한 작품으로 2015년을 시작하는 부산시립극단이 의욕적으로 선보이는 2015년 첫 정기공연 '다른 피'.

참혹한 과거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질적 고통과 시대적 부조리를 무대에서 꺼내 보려는 시도를 담은 영화

'해무'의 원작자 김민정이 발표한 '다른 피'는 지난해 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장 박장렬의 연출로 '연극집단 반'에서 초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다른 피'는 인기 만화가로 대중들의 큰 지지를 얻은 강준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위안부 사건에 대한 성찰, 가해자의 피와 피해자의 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서서히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다이나믹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린 작품으로 예고살인을 통하여 작품의 초반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대담한 기법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자 한 다양한 시도가 돋보이는 화제작이다.

'연극집단 반'의 대표, 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출가 박장렬은 세밀하면서도 섬세한 터치로 배우들의 능력을 120% 끌어내는 연출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현주, 이혁우, 이돈희, 정행심, 김은희, 엄지선, 황창기,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이재찬, 임신호, 김성열, 정인옥, 엄지영, 채민수, 김제형, 김민정, 이연진, 정오뜸 등 부산시립극단 전 배우가 무대에 오른다.

- 예술감독/문석봉
- 작/김민정
- 연출/박장렬(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 지회장)



## 불교TV 개국 20주년 기념 '나무아래 앉아서' 특집 공개방송

### 함께 걷는 세상, 아름다워라

일 시 | 3월 4일 수요일 오후 2: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전화신청, 접수)

문의 | 불교TV 02-3270-3431

...

불교TV개국 20주년을 기념한 특집 공개방송 '함께 걷는 세상, 아름다워라'.

불교TV의 힐링뮤직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목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무대는 부산을 비롯 광주, 대구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축하, 감사, 행복, 동행을 주제로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토크콘서트를 펼친다.

'감사'를 주제로 펼쳐지는 부산 공연은 행복으로 가는 비밀열쇠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법문, 전문연주인의 연주가 어우러진다.

**[프로그램]**

- 뱃노래, 천안삼거리, 통영개타령
- 윌리엄텔 서곡, 오블리디 오블리디
- 싱어롱 '섬집아가', Stand by me 등 수록
- 사회/정목스님
- 연주/솔리스트(아카펠라)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8회 정기연주회 리신차오와 부산시향의 '거인'

일 시 | 3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54

...



2015년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자유로운 감성의 피아니스트' 존 오코너가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8회 정기연주회 '리 신차오와 부산시향의 거인'.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엘 비라 마디간'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과 말러 음악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작품으로 알려진 교향곡 제1번 '거인'을 들려준다.

아일랜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존 오코너는 그동안 '섬세한 기교와 음악성, 더 이상의 연주는 없다'던 선데이 타임스, '그는 관중을 사로잡는 흥집을 때 없는 터치를 선사하는 아티스트다'워싱턴 포스트' 등 평론가들로부터 다양한 호평을 받아왔다.

## the 판타스틱 오페라 & 뮤지컬 II G.G.Go 복고

일 시 | 3월 10일 화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의 | 오페라컴퍼니 010-8776-0485

010-4165-4818, 010-5180-9313

...

부산 YMCA 오페라 합창단으로 시작,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전문 예술 공연 단체로 거듭난 오페라컴퍼니가 오페라 대중화를 위해 마련한 시리즈 음악회 'the 판타스틱 오페라 & 뮤지컬' 두 번째 무대 'G.G.Go 복고'.

오페라와 뮤지컬, 대중가요가 함께하는 'G.G.Go 복고'는 삶이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 있어 행복한 이 시대 아버지들을 위한 무대로, 오페라 '라보엠', '메리 위도우', '사랑의 묘약' 등 유명 아리아와 뮤지컬 '그리스', 1990년대 가요가 어우러져 그 시절 추억과 함께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 지휘/조윤환
- 프로듀서·연출/이유진



## 2015 문화중국 사해동춘 예술공연

일 시 | 3월 11일 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한중문화우호협회 02-335-1288

...

지난 2009년부터 중국 국무원 교민판공실 주최로 매년 춘절(설) 기간에 전 세계 화교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방문해 화교를 위문하고 현지인들에게 중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열리는 '2015 문화중국 사해동춘(四海同春)' 부산공연.

'문화중국 사해동춘'은 중앙민족가무단, 동방가무단 등 유명 예술 단체 뿐 아니라 송수잉, 엔웨이원, 동원화, 인시우메이, 차이귀칭 등 중국의 뛰어난 예술가들을 모아 조직한 예술단의 이름이자 공연 제목으로, 지난해까지 43개 국가급 예술팀이 태평양,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대륙별로 6개의 공연단을 구성, 전 세계 96개 국가와 홍콩, 마카오 등 184개 도시에서 총 288회 공연을 가진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중국의 유명 바리톤 양홍지, 가수 귀룡, 몽골음악의 대부 부울 바야르, 중국 운남성 훙하하니족 이족차치주 가무단 등 중국을 대표하는 연주자와 연주단체들이 출연, 중국의 전통음악, 무용, 경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부산시립무용단 춤추는 동화 클라라와 호두이야기

일 시 | 3월 11일(수)~13일(금), 16일(월)~20일(금) 오전 11: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45

...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우리춤의 매력을 전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춤추는 동화 2015년 무대 '클라라와 호두이야기'.

'춤추는 동화'는 지난해까지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어린이 관객들에게 사랑받아온 무대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무로 큰 인기를 모으면서 매년 매진사례를 낳기도 했다.

'춤추는 동화' 2015년 무대 '클라라와 호두이야기'는 '호두까기 인형'에 우리의 전래동화 '청개구리 이야기'를 각색, 무엇이든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 주인공 클라라는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단원 김공주, 호두는 단원 최의옥, 엄마 청개구리는 부수석단원 권봉정, 청개구리는 김시현, 박미나가 맡아 춤으로 읽는 동화세상을 펼친다.

- 안무/홍경희(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2015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일 시 | 3월 12일(목)~13일(금)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47

...



2015년을 여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첫 무대 2015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단원 개인의 기량향상을 위해 마련하는 무대로, 독창, 중창, 합창 등 다양한 무대를 구성, 동요, 한국가곡, 이태리가곡 등을 들려준다.

**[12일 프로그램]**

- 이수인/봄밤
- 필라/출거는 웃음
- 김진성/달팽이의 하루
- 정연택/벚꽃이
- 김애경/그네뛰기
- 백현주/몽금소리 노랫소리
- 헨델 / Ombra mai fu 등 수록
- 독창/서원빈, 김다희, 백다빈, 박연우, 강소현, 최준휘, 성인준, 정에스터, 김현우, 박상현,

김나희, 유명석, 이수빈, 김지원, 박예진, 정영지, 박세미

**[13일 프로그램]**

- 박경진/어린 왕자에게
- 이수인/별
- 김신혜/배고픈 호랑이
- 석광희/기울어진 우산
- 안토니오 칼다라/그대 잔인해도
- 김규환/님이 오시는지
- Bononcini / Per la gloria d'adorarvi 등 수록
- 독창/안지원, 김민재, 김시영, 전수인, 김다임, 권지혜, 성인준, 정에스터, 김현우, 박상현, 김나희, 유명석, 정에지, 이지윤, 김미선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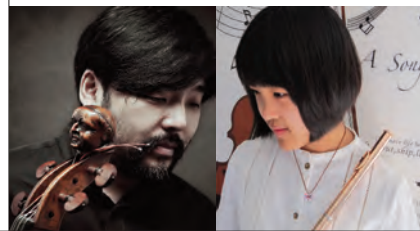
- 반주/이영옥
- 객원반주/박정미
- 안무지도/노금선
- 합창지도/김양자



###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36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일 시 | 3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UKO 010-3863-3087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사랑나눔 무대를 열었던 United Korean Orchestra(U.K.O)의 제36회 사랑나눔 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치오가 지휘하고 2012년 중국국립플루트콩쿠르 1위, 2013년 중국중앙국립음악원 중학교 콩쿠르 1위, 제6회 Anton Eberst 국제콩쿠르 1위를 차지한 중국중앙국립음악원 중학교에 재학중인 플루티스트 친 루이동, 인제대학교 교수,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음악감독으로 활동중인 첼리스트 양욱진,



신라대학교와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탈리아 밀라노 음악원 토스카니 음악원을 졸업하고 마스카니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한국성악콩쿠르 최우수, 부산문화상 연주부문을 수상한 소프라노 박현정, 경상대학교와 독일 쾰른국립음대, 러시아 마그니타고르스크(연주학 박사)를 졸업하고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테너 김지호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제2번 레하르/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푸치니/제비' 중 '도레타의 아름다운 꿈' 레온키발로/팔리아치' 중 '의상을 입어라' 슈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생상스/첼로협주곡 제1번 레하르/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Time to Say Goodbye 차이코프스키/1812년 서곡

- 지휘/리 신치오
- 첼로/양욱진
- 플루트/친 루이동
- 소프라노/박현정
- 테너/김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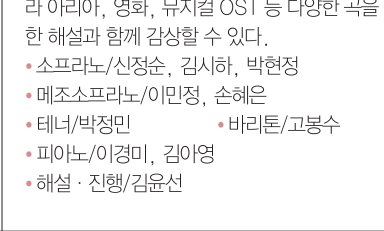


### 소리쟁이 성악연구회 2015 신년음악회

일 시 | 3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소리쟁이 성악연구회 010-4434-6605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성악가들이 부산의 클래식 발전을 위해 창단한 소리쟁이 성악연구회 2015 신년음악회. 연주자들이 자신을 낮추고 대중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창단한 소리쟁이 성악연구회는 2015년 영도문화예술화합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시작으로 관객들이 클래식 음악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한국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영화, 뮤지컬 OST 등 다양한 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소프라노/신정순, 김시하, 박현정
- 메조소프라노/이민정, 손혜은
- 테너/박정민
- 피아노/이경미, 김아영
- 해설·진행/김운선
- 바리톤/고봉수



### Blessed People! 창단연주회

일 시 | 3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강호진 010-2380-9991

지난해 3월 국내외 음악적공자들이 음악으로 기쁨과 사랑을 전하고자 창단한 Blessed People 창단연주회.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Blessed People은 창단 이후 부산대학교병원 자선공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자선공연, 대연교회 지역주민을 위한 Healing Concert 등 교회,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어려운 우리 이웃을 찾아 따뜻한 음악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 소프라노/권순유, 박민영, 박현지, 정재영
- 테너/강호진
- 베이스/최현욱
- 게스트/심지현(첼로)
- 바리톤/오세민
- 바이올린/김상희
- 반주/박수진, 김수연



### 아마치 세렐레 제4회 정기연주회 봄! 봄! 봄! 봄을 노래하다

일 시 | 3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 010-9334-6105

2011년 부산, 경남지역 성악가들이 관객과 보다 친근하게 만나고 호흡하기 위해 창단한 아마치 세렐레의 4번째 정기연주회. '봄! 봄! 봄! 봄을 노래하다'라는 부제의 신춘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현정, 김유진, 왕기현, 박현진, 테너 이철성, 김중식, 바리톤 조현수, 우주호가 출연, 한국 가곡과 외국가곡, 오페라, 뮤지컬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들로 생동하는 봄의 환희를 노래한다.

**[프로그램]**  
임금수/강건너 봄이 오듯 김동진/진달래꽃 뮤지컬 '지킬 &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레하르/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등 수곡  
• 피아노/박미은



### 영·호남 화합한마당 장애인 인식개선 신년 자선음악 콘서트

일 시 | 3월 19일 목요일 오후 6: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부산광역시 협회 758-5684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노인 등 부산의 취약계층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사)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부산광역시협회에서 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해 마련하는 장애인식 개선 신년 자선음악 콘서트. 배우 겸 가수인 양동근과 가수 타이거JK, 윤미래 등이 출연,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자선공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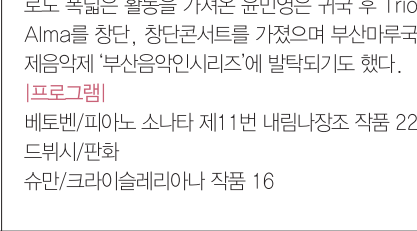


### 윤민영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윤민영 010-4998-3530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서일노이주립대학교, 일리노이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윤민영 독주회. 윤민영은 미국 유학 당시 WIU Concerto Competition 우승, UIUC Concerto Competition 우승, Kankakee Piano Competition 우승 및 특별상 수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서일노이주립대학교,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반주 조교를 역임하고 실내악, 성악반주 등 실내악 주자로도 폭넓은 활동을 가져온 윤민영은 귀국 후 Trio Alma를 창단, 창단콘서트를 가졌으며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시리즈'에 발탁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11번 내림나장조 작품 22 드뷔시/판화 슈만/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



### 이안청소년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22일 일요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혜정 010-2425-5204 이은주 010-3563-4540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결성된 이안청소년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해 2013년 3월 10명의 단원으로 창단, 현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7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이안청소년오케스트라는 창단 후 정기연주회와 사랑 나눔 연주회 및 작은 음악회, 초청연주회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음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 지휘자/김하균
- 협연/이안청창팀(이진모, 이진환, 이지윤, 김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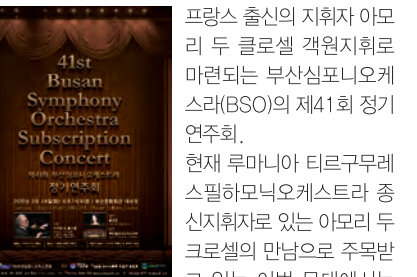


### 제41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진석 학생 50% 할인)  
문의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www.bso21.com

프랑스 출신의 지휘자 아모리 두 클로셀 객원지휘로 마련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의 제41회 정기연주회. 현재 루마니아 티르구무레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중신지휘자로 있는 아모리 두 클로셀의 만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테크닉과 음악성을 두루 갖춘 차세대 피아니스트 송유진이 협연자로 출연, 브람스 비극적 서곡 작품 81과 교향곡 제2번 작품 73,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 43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브람스/비극적 서곡 작품 81 라흐마니노프/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 43 브람스/교향곡 제2번 작품 73



### 독우회 제46회 정기연주회 스크리아빈 서거 100주년 기념 피아노 음악의 밤

일 시 | 3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초대(무료)  
문의 | 독우회 010-8515-2525

1994년 독일의 국립음대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후 부산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독우회의 46번째 정기연주회. 올해는 프랑스 인상주의와 러시아 음악 양식의 전통을 한데 종합해 현대 러시아 음악발전에 기여한 러시아 작곡가 스크리아빈 서거 100주년을 맞아 피아니스트 전숙영, 신정운, 조혜영, 장효진, 박지은, 김문주, 김지민, 이승란, 정예림이 그의 대표작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현대지 작품 28, 에튀드 작품 2-1, 작품 8-5, 작품 8-12, 발스 작품 38, 소나타 제2번 등



### 봄의 소리 왈츠와 함께하는 음악축제 2015 부산문화 신춘음악회

일 시 | 3월 25일 수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 1600-1803

클래식 기획사인 부산문화가 마련하는 2015년 첫무대 신춘음악회. 동부산대학교 백원석 교수가 지휘하는 동래구 여성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김유섬, 박현정, 박상희, 테너 이철성, 바리톤 최종우가 출연,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을 들려주며,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비올리스트 이성호가 모차르트 콘체르탄토 2악장을 연주한다.

**[프로그램]**  
요한 슈트라우스/오페레타 '박쥐' 서곡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이수인/내 마음의 강물 도니체티/오페라 '사무니의 린다' 중 '사랑의 황홀한 빛' 하차투리안/가면무도회' 중 '왈츠' 등 수곡  
• 사회/유재은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7회 정기연주회 대구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합동 신춘음악회

일 시 | 3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43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전해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지난해 교류음악회를 가졌던 대구시립국악단을 초청, 합동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1부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을 역임했던 유경조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대구시립국악단인, 2부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김철호의 지휘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화려하면서도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조석연/국악관현악을 위한 '도악' 조두남/성악과 국악관현악 '새타령, 밀양아리랑(이정호 편곡)' 이정호/경기도당굿 장단에 의한 타악협주곡 '불꽃' 정동화/비파협주곡 '연어' 조원행/분류와 별류의 만남 '산조합주와 관현악 풍류' 등  
• 협연/류진교(소프라노), 정염범, 한수진(비파)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9회 정기연주회 스페인의 열정

일 시 | 3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46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경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 이동신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선사하는 제49회 정기연주회.

2014년 창단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쳤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2015년 첫 무대로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들려준다.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 콩쿠르 1위(2008년), 한국기타협회 콩쿠르 1위 없는 2위(2008년), 2013년 독일 게벨스베르크 국제기타콩쿠르 1위를 수상하고 현재 뒤셀도르프 국립대학 마스터 과정에 재학중인 기타리스트 김윤호가 대중적으로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을, 카메라타 부산,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풍부한 음악성과 관객을 사로잡는 대범한 연주로 호평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이 생상스의 '하바네이즈'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샤브리예/스페인 광사곡  
 폰세/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남부의 협주곡  
 생상스/하바네이즈' 마장조 작품 83  
 마스네/발레 모음곡 '르 시드'

- 지휘/이동신(경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
- 협연/김희정(바이올린, BSO 악장), 김윤호(기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대학 마스터 과정)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5 신춘음악회

일 시 | 3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54  
 ...



싱그러운 새봄의 기운을 경쾌한 왈츠로 느껴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5 신춘음악회'.

폭넓은 레퍼토리에 대한 탁월한 해석과 천재적인 감각, 신선한 열정으로 인상 깊은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생동

하는 봄에 어울리는 '빈 왈츠'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음악가인 슈트라우스의 왈츠와 폴카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요한 슈트라우스 1세/라데츠키 행진곡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메타모르포제  
 요한 슈트라우스 2세/박쥐' 서곡  
 요제프 슈트라우스/천체의 음악' 왈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집시남작' 서곡  
 요한 슈트라우스 2세/새 피치카토' 폴카 등

## 피아니스트 박종화 '건반위의 이야기'

일 시 | 3월 27일 금요일 오전 11: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3.27/6.19/8.4/12.11 4회권 통합 7만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 607-3102~4  
 ...



음악과 피아노를 따라 살아온 낭만적 음악 유목민, 천둥처럼 나타난 한국의 젊은 천재 피아니스트, 불멸의 가장 소비아토슬라브 리히터를 능가하는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함께 하는 유쾌한 토크 콘서트 첫 번째 무대. 부산문화회관 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

되는 박종화 '건반위의 이야기'는 3월 27일 첫 무대를 시작으로 6월 19일과 8월 4일, 12월 11일 등 총 네차례 열릴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박종화는 일본 마이니치 음악콩쿠르 1위, 2003년 부조니 국제피아노 콩쿠르 입상 및 부조니상, 200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피아노콩쿠르 최연소 입상 5위 및 최우수 연주자상을 수상, 큰 화제를 모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다.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일 시 | 3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



따뜻한 감성과 지적인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 손범수의 해설로 오페라 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나는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부터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따른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페라 애호가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해온 '해설이 있는 오페라 음악회' 2015년 무대로, 손범수의 친근한 해설로 국내 유명 성악가들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 유명 오페라 세계로 안내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어렵고 다가가기 힘들다는 오페라 선입견을 깨고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재미있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방송인 손범수 외에도 세계적인 지휘자 사이먼 래틀로부터 '앞으로 주목하고 싶은 젊은 지휘자', 주빈 메타로부터 '훌륭한 음악성을 지닌, 아주 뛰어난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았던 지휘자 이태정이 지휘하고 스프라노 박은주, 양지영, 메조스프라노 백재은, 테너 정상혁, 바리톤 박대용이 출연,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2015 제33회 부산연극제 개막공연 극단 이틀 '햄릿'

일 시 | 3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28일 토요일 오후 5: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

프로젝트팀 이틀의 연출가 김지용이 연출을 맡은 개막작극연 '햄릿'.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왕위를 빼앗긴 주인공 햄릿이 부왕의 망령에 의해 겪는 갈등과 복수를 치밀하게 그린 작품으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공연되고 있다.

## 2015 제33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무한각체가역반응'

일 시 | 3월 30일(월)~31일(화)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

일제 강점기 시대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작가였던 이상의 삶과 사랑을 그린 창작극 '무한각체가역반응'. 구인회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나 평생 우정을 나누었

던 소설가 김유정과 그와 동거했던 기생 김홍, 부인이었던 변동림 등 주변 인물을 통해 이상의 작품 세계와 삶을 그려본다.

- 작·연출/최은영

## 2015 제33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여정 '파랑새'

일 시 | 4월 1일(수)~2일(목)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

한창 잘나가는 벤처 사업가 준호에게 한순간에 인생의 시련이 다가온다. 준호모와 그의 여자친구 연희는 준호가 다시 일어나서 예전처럼 돌아가기 위해 인간힘을 쓴다. 하지만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는 준호. 과연 준호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 각색/신호권 • 연출/김태호

## 2015 제33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누리예 '사초'

일 시 | 4월 2일(목)~3일(금)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연산군 4년(1498년)에 발생했던 무오사화(戊午士禍)를 소재로, 임금의 척령과 교시를 기록하던 예문관 사관들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극으로, 왕이라도 열람할 수 없었던 '사초'를 지켜내기 위한 사관들의 이야기가 역사적 배경과 어우러져 묵직하게 그려진다.

- 작/김문홍 • 연출/강성우

## 2015 제33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이그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일 시 | 4월 5일 일요일 오후 5:00, 6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

어느날 건물 붕괴 현장에 구조작업을 나갔던 박태열 의경이 시간을 구하고 구조물에 깔려 사망한다. 알고보니 건물 붕괴는 댐 건설로 인한 피해였던 것.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댐 건설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 박태열 의경의 죽음을 여론 몰이로 이용하려하는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권력의 추악한 이면을 그려낸 극단 이그라 창작극.  
 • 작/이미경 • 연출/최성우

## 리 신차오와 함께하는 100인이 펼치는 플루트의 향연

일 시 | 3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



부산, 경남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들의 모임인 부산그랜드플루트 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100인이 펼치는 플루트의 향연.

플루트 인구의 저변 확대와 부산의 오랜 숙원인 음악대학의 플루트학과 개설을 위한 초석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현재 중국중앙국립음악원에 재학중인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들과 부산, 경남의 예고, 대학생, 대학원생 등 110여명의 전공자들이 한 무대에 서는 특별한 무대이다.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인 리 신차오가 지휘를 맡아 화제가 된 이번 무대에서 지휘자 리 신차오는 지휘 뿐 아니라 플루트 협연자로 모차르트 협주곡 2번 1악장을 연주한다.

- 지휘·플루트 협연/리 신차오

##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일 시 | 3월 5일 목요일 오후 12:30 **대극장 로비**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44  
 ...

음력 정월대보름 지신밟기가 3월 5일 부산문화회관 직원과 부산시립예술단 단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와 부산문화회관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날 지신밟기에서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8호 부산고분도리 걸립패가 출연, 터를 돌며 지신을 달래고 복을 빌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발전과 안전을 기원한다.



##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 3월 토요상설무대는 21일에만 열립니다.  
 입장료 | 선착순 무료 (공연 30분 전 입장, 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6

## 3월 21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프로그램]  
 생상스/플루트,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타린텔라 가단조 작품 6(플루트/이주형, 클라리넷/차호철, 피아노/이은정)  
 모차르트/클라리넷 5중주 가장조 작품 581(클라리넷/차호철, 바이올린/조우태, 이에서, 비올라/김초롱, 첼로/윤성민)

모차르트/플루트 4중주 리장조 작품 285(플루트/이주형, 바이올린/조우태, 비올라/김초롱, 첼로/윤성민)

루브초프/플루트, 오보에(클라리넷)와 피아노를 위한 마르베아 환상곡(플루트/이주형, 클라리넷/차호철, 피아노/이은정)

# Music 음악

##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4월 앙상블 클라쑈 정기연주회 첫 번째 이야기 'Innovation'



혼자만의 공간에서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을 벗삼아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삶에서 잠시 벗어나 '함께' 작업하며 혼자서는 느끼지 못하는 무한한 음악적, 문화적 영감(靈感)을 공유하고자 피아니스트 최은영과 한상민이 결성한 피아노 듀오

'앙상블 클라쑈'의 무대. 독일어 'Klavier(피아노)'와 'zusammen(함께)'라는 두 단어를 합쳐 만든 '클라쑈(Klazum)'은 두명의 피아니스트가 주축이 되어 다른 장르의 연주자들과 다양한 영역의 문화네트워크를 구축, 예술로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생상/죽음의 무도 작품 40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2번 작품 17 등  
 •특별출연/박병진, 하경윤(떠쿠선)

### 11일 The Blossom Our Best Days



부산예고 동문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심정자,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 안은지, 비올리스트 김가민, 첼리스트 김나래가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생상/피아노 4중주 내림나장조 작품 41  
 생상/피아노 5중주 가장조 작품 14



18일 The Sounds  
 박소미, 정수연, 박은정, 이유미, 이정원, 우나실 등 다섯명의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피아노 앙상블의 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2 Pieces 6hands  
 거쉰/쿠바 서곡

보로딘/이고르 공' 중 '플로베츠인의 춤'  
 G. 앤더슨/카르멘 환타지 등

### 25일 이은정의 '피아노 플러스' 두 번째 이야기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이탈리아 Academia Internazionale di Musica 반주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은정의 무대.  
 이은정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유라시안첼보오케스트라, 대구시립교향악단, 서울아카데미오케스트라, 부산원드오케스트라, 부산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마산시립교향악단, United Korean Orchestra, 부산첼보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한 바 있다.  
 •연주/이은정(피아노), 서은아(바이올린), 손주연(비올라), 김기량(첼로), 김민정(플루트), 장예지(플루트), 박신영(오보에)

## Space UM 차가 있는 목요일음악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균일 1만원(5일 공연은 균일 3만원, 음료 포함)  
**문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복합문화공간 Space UM이 매주 목요일 저녁 마련하는 '차가 있는 음악회' 3월 무대.

### 5일 케이티링 & 이야기가가 흐르는 하우스 콘서트 화가&피아니스트 데이드림 콘서트



드라마 '겨울연가' OST 작곡, 드라마 '순수의 시대', '내 이름은 김삼순', '여우야 뭐하니', '파리의 연인', 영화 '접속' 등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음악에 참여하며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화가 데이드림 콘서트.

전시 '피아노 치는 화가'展 오프닝을 겸한 무대로, 자전적 애니메이션 '엄마의 강'도 상연한다.

### 12일 박필은 피아노 독주회 '불멸의 소나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



19일 최은영 일곱 번째 이야기 '경상도민요 재즈피아노와 춤을 추다'  
 국립부산국악원 민요단체를 역임하고 현재 중무무형문화제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경상도민요보존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최은영과 한국적 재즈를 지향하는 재즈밴드 하지림트리오가 들려주는 '경상도민요 재즈피아노와 춤을 추다'.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색채와 재즈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로, 동·서양을 넘나드는 흥미로운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  
 •연주/하지림(재즈피아노), 유경훈(콘트라베이스), 김진훈(드럼)

### 26일 재즈보컬 이주미&Friends '봄, Jazz에 취하다'



지난 2011년 자라섬 재즈콩쿠르 대상을 수상하며 국내외 활발하게 활동중인 재즈보컬리스트 이주미와 피아니스트 쇼코 츠기오카, 베이시스트 하지메 내와, 드러머 타케시 나카무라가 마련하는 재즈무대. 이주미의 앨범 수록곡과 봄을 주제로 한 재즈 스탠다드, 영화 주제곡 등 다양하고 편안한 곡을 통해 이들의 우정이 담긴 경쾌하고 위트 있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 이현욱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3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마스트미디어 02-541-2512~3



최근 서울에서의 연주활동을 통해 열정, 깊이와 섬세함을 모두 갖춘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현욱 귀국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프랑스 Ecole Normal de Musique de Paris를 졸업하고 현재 한세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있는 이현욱은 코리아헤럴드콩쿠르 전체 대상을 받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후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의 밤 오디션에서 최연소 1위, 부산음악교육연구회 콩쿠르 1위, 음협 콩쿠르 2위, 제6회 Osaka International competition(일본 오사카) 1위없는 2위,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실내악 부문 1위,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신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전통예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및 국악 대중화를 목적으로 매주 토요일 마련해온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 '토요신명무대' 3월 무대.

**7일 국악관련악과 놀아보자(국악관현악)**  
 피리협주곡 '차진한일'(이성규 곡), 해금협주곡 'Verses'(토마스 오스본 곡), 성악협주곡 '아리랑연곡'(박정규, 황호준 편곡), 현악협주곡 '산조협주곡', 대금·아쟁협주곡 '민요모음', 장구협주곡 '오디세이'

**14일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무형문화(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요제례악, 처용무, 가곡, 영산재 작법, 아리랑,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21일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다(노래와 악기)**  
 시조, 청성곡, 가곡, 수룡음, 가야금병창, 보허자, 박대성류 산조합주

**28일 흐르는 듯 멈추고, 멈춘 듯 흐른다(민속춤)**  
 승무와 나비춤, 진주교방굿거리와 동래한량무, 영남입춤, 산조춤, 태평무, 밀양뺑중놀이

## 부산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with FRIENDS 음악회

**일 시** | 3월 5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객민정 010-9250-3348



지휘자 손명규이 이끄는 부산내셔널심포니 오케스트라와 3월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부산예술중학교 졸업생이 함께하는 무대. 부산예술중학교 재학생들이 매년 여름과 겨울, 두차례 마련하는 with FRIENDS의 졸업무대로, 피아노 박상현, 김민지, 플루트 이지연, 바이올린 천나은, 김주연, 트럼펫 한윤송, 성악 백민정 등 7명의 졸업생이 출연, 새내기 고등학생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는 차세대 어린 연주자들에게 의미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고상지 with Voice 선우정아>

일 시 |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오 연주자이자 탱고 작곡가 고상지와 2014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팝 앨범부문, 올해의 음악신인상 수상 2관왕에 빛나는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가 탱고음악으로 무대를 장식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3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강렬한 성향의 탱고부터 사랑스런 왈츠 리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탱고를 선보이는 고상지 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에 강렬함과 청아함이 모호하게 섞인 독특한 스타일의 선우정아의 음색이 어우러져 한편의 아름다운 탱고영화 음악을 본 듯한 감동을 선사한다.



### 정두환의 화요해설음악회 <좋은음악 & 좋은만남> 500회 특별 음악회 함께 나눌수록 커지는 꿈의 세상

일 시 | 3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정두환 011-574-0423



PSB 부산방송국(현 KNN) 개국과 함께 PSB 라디오의 유일한 클래식 프로그램이었던 '좋은음악 & 좋은만남' 진행자로 활동했던 음악평론가 정두환이 음악을 사랑하는 부산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출발한 화요해설음악회 <좋은음악&좋은만남> 500회 특집 음악회.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 유목민' 정두환은 지난 17여년간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과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 및 진행하였고, 합창단, 오케스트라, 오페라 지휘, 평론, 작곡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음악 작업을 펼쳐왔다.

- 사회/유정임(부산영어방송국 국장)
- 출연/김순화(소프라노), 박승웅(류트), 윤슬현악사중주단, 부산블런더어워드앙상블

### 국립부산국악원 '신춘다회' 만개(滿開)를 기다리는 만남의 향기

일 시 | 3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전석 무료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국립부산국악원이 올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나누기 위해 마련하는 신년인사회 '신춘다회'. 차(茶)를 곁들인 악(樂), 가(歌), 무(舞), 도(圖)의 종합공연 무대로, 차 한잔으로 마음을 맑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소박한 수행의 무대를 제공한다. 올해 신춘다회에서는 부산지역 인사들과 국악인, 나아가 국악을 사랑하는 자들이 둘러 앉아 차에 곁들인 음악과 노래, 춤, 그림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며 향기로운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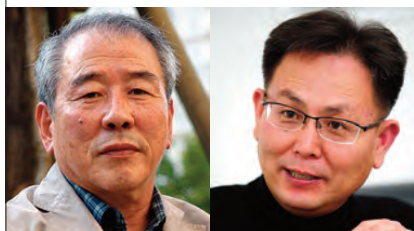


### 음악풍경 토크콘서트 나를 적시고 간 노래들 5-김문홍

일 시 | 3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음악풍경 연주회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이 마련하는 토크 콘서트. 지역사회 명망있는 인사를 초청, 그들의 삶의 위안과 감동을 안겨준 음악을 시연과 함께 들어보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로, 초대손님과 관객과의 음악적 소통과 공감을 꾀한다. 3월 무대에서는 극작가, 연극평론가로 활동중인 김문홍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한다. 지난 1980년 창작 희극 '수직항상'으로 극작가로서 첫발을 내딛은 김문홍은 지금까지 5권의 희곡집을 비롯 다양한 저서를 펴냈으며, 현재 부산시립극단 운영위원, 부산창작극연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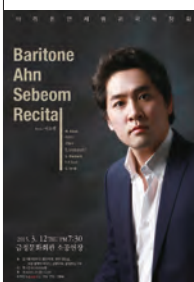
- 진행/김창욱(음악평론가)



### 바리톤 안세범 귀국 독창회

일 시 | 3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안세범 010-2430-4214



풍부한 성량과 따뜻한 음색의 소유자 바리톤 안세범 귀국 독창회. 동의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이탈리아로 유학, Licinio Refice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ARAM 아카데미 성악과 가곡과정, Il seminario di NORMA 아카데미 합창지휘과정을 수료한 안세범은 Licinio Refice 국립음악원 재학 중 'Fausto Ricci' 국제콩쿠르 우승, 'Euterpe' 국제콩쿠르 3위에 입상한 바 있다. 귀국 후 오페라 '투란도트', '라보엠'에서 호연을 펼치며 오페라 가수로서도 가능성을 보여준 안세범은 현재 해피앙상블 단원,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원, 성광교회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이소영

### 클라리넷 장일훈 귀국 독주회

일 시 | 3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고신대와 미국 Campbellsville University 석사, Duquesne University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University of Arizona 박사과정에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장일훈 독주회. 장일훈은 그동안 부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부산클라리넷과이어 단원, 부산아카데미 8중주 창단 및 단원, University of Arizona Clarinet Choir 부지휘자, University of Arizona Clarinet Quartet 2nd 클라리네티스트를 역임하고 현재 꿈의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강사, 양산 운누리교회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베버/그랜드 듀오 콘체르탄트 작품 48  
브람스/클라리넷 소나타 2번 내림마장조 작품 120  
히데미트/클라리넷과 피아노 소나타 등  
• 바이올린/김현정     • 피아노/최영민

###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14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010-6432-0821

2002년 대학교수, 의사, 감정평가사, 교사, 군인, 학원강사,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음악 동호인들로 출발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그리스어로 '선율'이란 뜻을 담은 멜로소오케스트라는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초청연주, 한국공인회계사 정기총회 초청연주, 해운대 한화리조트 초청연주, 금정수요음악회, 울산 아가페 합창단 정기연주회, 환우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야외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비제/카르멘 환상곡  
차이코프스키/왈츠  
드보르작/교향곡 8번

### 금정문화회관 신인음악회

일 시 | 3월 16일(월)~21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18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문화공감 010-3311-0153



금정문화회관이 부산, 울산, 경남지역 소재 대학교 2015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지역간 교류와 화합을 위해 마련한 신인음악회.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신라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경성대학교 등 9개 대학교에서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을 전공한 36명의 신인 연주자들이 그동안 쌓은 음악적 기량을 선보인다.

- 16일(월)~17일(화) 관현악콘서트
- 19일(목)~20일(금) 성악콘서트
- 21일(토) 피아노, 작곡콘서트

### 2015 신춘음악회 '봄의 축제'

일 시 | 3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금정문화회관이 2015년 첫 기획공연으로 마련하는 2015 신춘음악회 '봄의 축제'. 부산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임병원(경성대학교 교수), 조현미(경성대학교 교수), 김동욱(부산대학교 교수), 김도경(비르투오조앙상블 단원), 비올리니스트 김은진(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 피아니스트 에르노 페히어와 지휘자 박성원이 이끄는 Busanian Philharmonic Orchestra가 새봄의 설렘을 담은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한빛의 유콘서트 'Take-Out Ensemble'과 함께 축배의 노래

일 시 |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 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국제신문 500-5222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8명의 성악가와 1명의 피아니스트로 이루어진 남성앙상블팀 'Take-Out Ensemble'의 무대로 마련되는 한빛의 유콘서트 3월 무대. '테이크 아웃' 즉, 간단하게 포장을 해서 가듯이 쉽고 재미있는 앙상블을 선보이는 'Take-Out Ensemble'의 무대는 뮤지컬과 팝페라, 대중가요,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장르를 8명의 성악가들의 음색으로 즐기는 쇼 코어(Show Choir)형식의 콘서트로,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우아하게 그리고, 때로는 웅장하게 변화하는 무대의 감동을 선사한다.

- 출연/테너 오동주, 강은태, 김승태, 김성, 성민기, 양승연, 바리톤 최대우, 베이스 김정대
- 피아노/유영욱
- 플루트/황미리
- 첼로/정승미

###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일 시 | 3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피아니스트 조상한의 무대로 마련되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3월 무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는 그동안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실연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2001년 독일로 유학, 독일음악이론을 체계화한 Wilhelm Mahler가 교수로 재직했던 데트몰트 국립음대에 서 Edmundo Lasheras 교수를 사사한 조상한은 이번 무대에서 바흐 연주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바흐/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라단조 작품 903  
바흐/프랑스퐁에 따른 서곡(파르티타 니단조) 작품 831

###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제1회 정기공연

일 시 |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S석 2만원,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우리 전통공연예술의 원형을 올바르게 지켜내고 그 전통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의 11번째 정기연주회. 올해로 창단 7년째를 맞은 국립부산국악단 기악단, 성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 지역에서 전해지는 농악을 중심으로 풍물가락과 사물놀이 장단, 경서도 민요와 동부, 남도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중들과 만난다.



### 프로양상블 시리즈 '소통과 공감' 1 포르투나양상블 연주회

일 시 |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음악풍경 연주회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부산에서 비약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내악단을 초청, 그들의 음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한 프로양상블 시리즈 '소통과 공감' 첫 번째 무대. 박미정, 홍기정, 백홍선, 조미혜 등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구성된 포르투나양상블이 출연,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근접한 바이올린 연주로 대중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한다.



### 제39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부산국악오케스트라 BKO 초청공연

일 시 | 3월 19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부산의 대표적 민간 국악오케스트라 BKO(Busan Korea Traditional Orchestra)의 무대로 마련되는 제39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지휘자 홍희철과 부산 최초 여성국악지휘자 서나영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악계의 프리마돈나 오정해와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 구민영, 윤선기, 김창돈, 일본에서 가장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을 사랑하는 고토연주자 카타오카 리사, 그리고 강렬한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는 경북도립국악단 사물놀이팀이 출연해 신명넘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이경섭/창작국악관현악 '방향'  
강상구/창작국악관현악 '꿈아의 숨결'  
계성원/고토를 위한 국악관현악 '이동공감'  
성악과 국악관현악 '아리아리랑', '아름다운 나라', '박타령'  
오정해와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배 띄어라', '꽃분네야', '사철가'  
박범훈/사물놀이와 상모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  
• 지휘/홍희철, 서나영  
• 사회/오정해  
• 연주/부산국악오케스트라 BKO  
• 협연/고토연주자 카타오카 리사, 경북도립국악단 타악팀, 소프라노 구민영, 윤선기, 바리톤 김창돈



### 김진희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3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진희 010-9928-3733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진희 독주회. 김진희는 그동안 국내외 11차례 독주회를 비롯 독일 뮌스터, 뒤셀도르프, 랑엔펠트, 부퍼탈,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독주회 및 초청연주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가람신인음악회, 러시아 글린카 콘서트홀, 독일 프라이부르크 '러시아 음악', 체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5번 다단조 작품 10의 1  
브람스/슈만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9  
리스트/순례의 해, 제2년 이탈리아 중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제104번', '단테를 읽고 소나타 풍의 환상곡'

### 함정민 작곡 발표회 나의 수필 제 1권

일 시 | 3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안혜정 010-5644-0958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작곡공부를 시작, 부산음악협회 작곡 초등부 부문 대상, 부산음악협회, 부산음교 중등부 수상, 한국음악협회 공쿠르 작곡 고등부 부문 2등을 수상한 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 함정민 작곡 발표회.

[프로그램]  
Concerto for Piano and Clarinet(클라리넷/이예찬, 피아노/함정민)  
Piano Trio in G minor(바이올린/김효연, 첼로/김하빈, 피아노/김성혜)  
가곡 '언덕에 바로 누워', '낙타'(바리톤/이동현, 김지석, 피아노/함정민)  
Piano Solo 'Suite Arbre'(피아노/김성혜)  
Woodwind Quintet '하루'(플루트/신원혁, 오보에/방보민, 클라리넷/이예찬, 호른/서용진, 바순/박세진) 등

###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춤극 춘향을 따라 걷다

일 시 | 3월 26일(목)-27일(금)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판소리 춤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된 국립민속국악원 '춘향을 따라 걷다'. 기존 춘향전 이야기의 시간적 구성을 새롭게 각색, 노년에 접어든 춘향이 이팔청춘의 젊음을 거두고 세월이 쌓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번 무대는 소리와 극예술의 양식을 접목한 색다른 무대로, 노래하는 춘향과 춤을 추는 춘향이 공존하는 가운데, 춤이 지닌 생략과 상징적 몸 언어로 새로운 이미지의 춘향 이야기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 한유주 플루트 독주회 별들의 향연

일 시 | 3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초대  
문의 | 한유주 010-8526-1438



동아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오스트리아 Wiener Meister Kurs Diplom,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UNCG)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플루트 과라넷 '글랑', 부산플루트양상블 멤버, 인터네셔널 플루트 콰이어 수석 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한유주 독주회.

Young Philharmonic 오케스트라, UNCG Wind Ensemble, UNCG Symphonic Orchestra 단원을 역임한 한유주는 창원시립교향악단 객원연주, 아트심포니, 동아대학교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신촌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피아노/이은혜  
• 게스트 출연/윤선기(소프라노), 박경호(더블베이스), 권영일(퍼쿠션)

### Play 연극

#### 코미디극 러브 인 매직

일 시 | 2014년 4월 30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5:00  
경성대 신나는 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경성대 신나는 극장 1588-5567

'허둥9단' 개그맨 허동환이 직접 연출, 출연하는 '러브 인 매직'은 기존 틀에서 벗어난 옴니버스 형태의 빠른 진행으로 관객들과 함께 연기하는 쌍방향 공연이 특징이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두근거리는 사랑을 소재로, 포복절도 개그와 함께 환상적인 마술쇼가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소극장의, 소극장을 위한, 소극장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개그 공연이다.



### 청년음악가 시리즈 1, 2 양팽테리블을 위하여

일 시 | 3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음악풍경 연주회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갖게 하는 청년음악가 시리즈 첫 번째 무대.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오스트리아 안톤브루크너 음대를 졸업하고 발트슈타인 슈티프츠교회 솔리스트로 활동한 소프라노 강소영, 인제대학교 음악학과(실기우수 전액 장학생)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창원시립교향악단, 대학교향악축제 협연자로 무대에 선 바이올리니스트 이부영이 청년음악가 시리즈 첫 무대를 연다.  
• 진행/조용연(부산음악평론가협회 콘텐츠키워드팀장)



### 글로벌 신예음악회

일 시 |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글로벌장학재단 기금)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 글로벌 행복음악회

일 시 | 3월 29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글로벌장학재단 기금)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출연인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로, 그동안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자부심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려왔다.



### 뮤지컬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시즌 3

일 시 | 2014년 11월 7일(금)-2015년 4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다코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의 | 아트레볼루션 010-9273-0711  
cafe.daum.net/Art-Rev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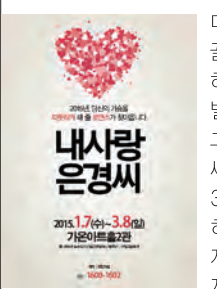


말 잘 듣고 이쁘던 큰 딸에서 구박당여리로 전락한 초등학교 교수 노처녀 강화와 텔레파시 초능력자 인터넷 설비기사 힘찬의 따뜻한 환타지 로맨스극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이 시대에 남녀라면 결혼을 앞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들,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 함께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 연출/박정우  
• 출연/손아영, 김유리, 채민수, 김범수, 정종욱, 김기령, 박다솜, 박준성

### 연극 내 사랑 은경씨

일 시 | 1월 7일(수)-3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2,900원, 주말 14,900원)  
문의 | (주)문화락 1600-1602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끝났던 이 시대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정년퇴직 후 벌어지는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내 사랑 은경씨'. 30년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이 시대의 아버지가 갑자기 가정적인 아버지로 돌아오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정감 넘치게 그려내면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내 사랑 은경씨'는 남은 인생 자신을 위해 고생한 아내에게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남편, 60대 기장이 준비한 20대들이나 하는 귀여운 이벤트에 크고 작은 오해와 다툼을 재미있게 풀어낸다.  
• 출연/임창완, 허진, 심보람, 안지환, 이아름, 허민경





###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일 시 | 3월 20일(금)~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23일 공연없음)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입장료 | VIP·O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문 의 | 인터파크INT 950-6500



한국 초연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되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 부산무대.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프랑스의 전설적인 극작가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인 카르도 코치안테 등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완성한 '노트르담 드 파리'는 세계적인 성공은 물론 지난 2005년 첫 내한공연 당시 세종문화회관 최단 기간 최고 관객수를 기록하며 '프랑스 뮤지컬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빅토르 위고의 완벽한 문장을 바탕으로 한 편의 시와 같은 노래로 완성된 '노트르담 드 파리'는 프랑스 원어로 들었을 때 그 아름다움이 가장 극대화되는 작품으로, 한국 초연 10주년을 맞아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노트르담 드 파리'의 상징적인 존재인 뱃 로랑과 리사르 샤투스트, 로디 줄리엔느 등 2005년 초연 당시 최고 드림팀이라 불리던 프랑스 오리지널 주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원작/빅토르 위고
- 극본·가사/뤽 플라몽동
- 음악/리카르도 코치안테
- 연출/질 마요
- 안무/마르티노 웰라
- 출연/뱃 로랑, 리사르 샤투스트, 존 아이젠, 스테파니 베다드, 미리암 브루소, 로디 줄리엔느, 가르디 퓨리, 로베르 마리앵, 제롬 콜렛, 안젤로 델 베키오, 이반 페노, 스테파니 슈레저 외

### 윤동주 서거 70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서시'**

일 시 | 3월 24일(화)~4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윤동주 서거 70주년 기념해 극단 연희단거리퍼레이드 슬프고도 아름다웠던 윤동주의 젊은 날을 창작뮤지컬로 제작한 '서시'.

창작뮤지컬 '서시'는 시인 윤동주가 해수 투입 생체실험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몸이 바닷물을 주입하는 생체실험을 당하는 시인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해수 투입 실험의 두드러지는 부작용은 환각, 죽어가는 시인의 환각이 빚어내는 시편들은 처절하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지금 여기 젊은 영혼들에게 말을 건다.

- 대본/연출/이재경
- 작곡/이수연
- 출연/송준형, 박인화, 김영학, 김연지, 안윤철, 허가에, 양승일

### 2015 제33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까리프로젝트 '욕하고 싶은 날'**

일 시 | 3월 27일(금)~4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청춘나비 아트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따뜻한 국밥과 국밥집 할매의 정겨운 욕이 있는 국밥집에는 단골손님들이 오늘도 드나든다. 수년 동안 사법고시 준비 중인 고시생, 조그마한 술집을 운영하는 분홍이모, 수십 년 넘게 막노동판을 돌아다니는 막할배, 40살이 다 되도록 시집을 못가는 노처녀... 국밥보다 뜨거운 '욕'을 먹는 소시민들의 일상을 그린 무대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할매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위로와 삶을 이야기한다.

### 2015 제33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불의 전차 '행성의 진화 초기단계, 불확실한 미래'**

일 시 | 3월 30일(월)~31일(화)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주인공 이티가 소속된 국경원은 UFO의 존재를 믿고 수시로 전파를 보내는 한 인터넷 카페 회원을 간첩으로 추정하고 체포하지만, 그가 대답하는 건 터무니없는 UFO의 얘기들 뿐. 결국 정찬성은 살해되고 찌찌한 기분에 이티는 정찬성의 아이디를 추적해 실제로 그가 가입한 카페에 잠입한다. 상주에서 열린 카페 정모에서 외계인과 조우하지만 그는 미래를 구하기 위해 은 저항군 소속 군인으로 이어 대항군이 도착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펼쳐지는데... 결국 저항군이 죽고 주인공은 저항군을 대신해 미래를 구출하러 UFO에 탑승한다.

### 2015 제33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시나위 '색동다리'**

일 시 | 4월 1일(수)~2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나뭇의 철학자 사고로 소방관의 길을 선택한 주인공 이성철은 신도시에서 연거푸 발생하는 자살사건의 죽음들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 서러운 인생살이를 겪어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은 주인공

은 독립영화 감독인 그의 연인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고, 연인인 최고은은 그들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아 세상에 전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 다니던 주인공은 정작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이 죽어가는 현장을 놓치고 마는데...

### 2015 제33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도깨비 '백수의 별'**

일 시 | 4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조용한 어느 마을에 난데없이 운석이 떨어진다. 운석이 떨어진 땅의 주인은 소년의 아버지이고, 운석의 최초 발견자는 그 마을 중학교 교감 선생이다. 소년의 아버지와 교감 선생은 떨어진 운석을 두고 서로 자기가 주인임을 내세우는데... 떨어진 운석을 두고 벌어지는 헤프닝을 그린 극단 도깨비 '백수의 별'.

- 작/김경미
- 연출/최광욱

### Dancing **무용**

#### 하정화의 춤 **해월여의풍**

일 시 | 3월 7일 토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하정화 010-9932-3950



우봉 이매방 무용경연대회 특상, 부산KBS 무용경연대회 금상, 춘향극악대전 무용경연대회 우수상을 수상하고 현재 한국예술문화교육진흥원 예술강사로 있는 춤꾼 하정화를 중심으로 젊은 춤꾼과 국악인들로 결성된 하정화무용단의 무대.

'해월(함께할 땀, 달 月)·여의풍(갈을 如, 뜻 意, 바람 風)'이라는 테마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함께 춤추고 활동하는 무용단 단원들과 함께하는 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일으키는 우리춤의 바람이라는 의미를 담아 신명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작품] 승무, 입춤, 새향발무, 살풀이춤, 태평소시나위, 장구춤, 북춤, 부채춤

###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발레시어터 **신데렐라**

일 시 | 3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esp ENTERTAINMENT 070-8805-9219, 02-455-7980



고전발레의 본고장 러시아 발레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발레시어터 '신데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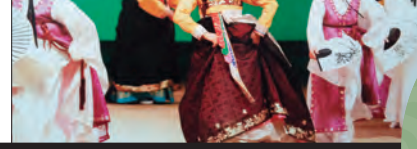
지난 23년간 세계적인 발레단인 러시아 키로프 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 1970년대 러시아 연방상, 1979년 프타파상, 1978년 파블로 피카소상 등을 수상했던 올레그 비노그라도프가 연출한 발레 '신데렐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명작동화를 무대화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발레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발레 '신데렐라'로 내한공연을 갖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발레시어터는 매년 150차례 이상 러시아 전국과 해외순회 공연을 통해 정통 러시아발레를 선보이고 있다.

### 제2회 예담무용단 정기발표회 **舞談**

일 시 | 3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신에담 010-5473-3241

전북국악협회 주최 제30회 전국국악대전 종합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춤꾼 신에담을 단장으로 초등학교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실력을 연마해온 예담무용단의 두 번째 정기발표회. 예담무용단은 제14회 진해전국국악대전 일반부 무용부문 금상, 장려상, 신인부 무용부문 대상, 제15회 창원전국국악대전 신인부 무용부문 대상 등 전국 콩쿠르에 참가,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프로그램] 도살풀이(김숙자류), 지전춤(김진홍류), 현화무, 교방수건춤, 교방검무, 장구춤, 산조춤 등



## 2015년 국립부산국악원 청소년국악문화학교

일 시 | 3월 14일(토)~5월 30일(토) 오후 1:00  
국립부산국악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32

- \*\*\*  
폭넓은 국악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국립부산국악원 '2015년 청소년국악문화학교'. 학생들이 국악을 악·가·무 일체의 전통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배워서 자연스럽게 재능과 감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래와 춤, 악기 강습을 3분기(3월~5월, 6월~8월, 9월~12월)로 나누어 차례로 운영한다.
- 응시자격/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재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
  - 오디션/3월 7일(토) 오전 10시
  - 접수기간/2월 24일(화)~3월 4일(수)
  - 교육비/15만원



##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3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  
무지크바움에서 2013년부터 매월 진행중인 클래식과 재즈 매니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3월 무대.
- [1부 프로그램]  
다니엘 바렌보임, 막심 벤게로프,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1997  
리사르 갈리아노 라 스트라다 퀴텟, 니노 로타 현정 공연, 2011
- [2부 프로그램]  
팻 메스니 그룹, 시크릿 스토리 라이브, 1992  
폴메카트니 앤드 윈즈, 락소라이브, 1980
- 기획 및 진행/손명균, 박형석



## 유럽의 문화유산을 찾아 역사속으로

일 시 | 3월 16일(월)~4월 13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1강좌 1만원(茶 포함, 5강 모두 사전등록 시 4만 5천원)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 \*\*\*  
[프로그램]  
1강/에게해 문명-크레타 크로노스 궁터와 미케네(트로이전쟁)  
2강/그리스 문명-문화해국주의와 파르테논신전(폴리스)  
3강/로마 문명-세계제국의 문화와 콜로세움, 카라칼라 공중목욕탕  
4강/종교가 스며든 대성당과 수도원-피사, 노트르담, 폰트네, 마울브룬  
5강/문화와 경제의 시작 : 城의 세계-고성과 성벽 도시 카르카손느, 케어펠리
- 강사/강미현(부산외대 출강)

## Display 전시

### 강혜은 초대전

일 시 | 1월 29일(목)~3월 4일(수) 맥화랑  
문 의 | 맥화랑 722-2201

### 소울아트스페이스 소장전 판화속으로

일 시 | 1월 29일(목)~3월 12일(목)  
소울아트스페이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www.soulartspace.com

- \*\*\*  
• 전시작가/김덕기, 김원숙, 김중학, 김창열, 김한기, 무라카미 다카시, 박수근, 오치군, 이월중, 이우환, 장욱진, 토비아스 레베르거



장욱진 작 '기루소'

## 강선학 '순간'展

일 시 | 2월 5일(목)~3월 5일(목)  
창작공간 SOUL 제 1, 2전시실  
문 의 | 창작공간 SOUL 581-5647



## '도시의 벽을 채우다' 전

일 시 | 2월 6일(금)~3월 3일(화) 티엘갤러리  
문 의 | 티엘갤러리 623-4387

## 8인 SPECTRUM 전

일 시 | 2월 11일(수)~3월 8일(일) 갤러리 예가  
문 의 | 갤러리 예가 624-0933

- \*\*\*  
• 참여작가/김명숙, 김세은, 김중숙, 김희정, 서유정, 원애경, 이희진, 채연희

##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전 '한국의 선, 색, 공간'展

일 시 | 2월 13일(금)~4월 1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소장품들을 선정, 한국적 아름다움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마련한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전.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자연 풍경으로 한국적 선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작품을 비롯 동양적 사유와 철제를 통하여 내면으로 인도하는 공간 표현, 의미와 무의미의 무한 반복이나 오행사상에서 비롯된 전통적 미감을 품고 있는 질서로서의 색 표현 등 작고 작가부터 현존하는 세계적 거장까지의 다양한 근현대미술 작품들을 통해 작가들의 감성을 생동감 넘치는 선과 색 그리고 무한한 공간으로 표현한 회화, 사진 작품들이 소개된다.



## 미술을 통해 진정한 '나' 표현하기

일 시 | 3월 17일(화)~4월 14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1강좌 1만원(茶 포함, 5강 모두 사전등록 시 4만 5천원)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 \*\*\*  
[프로그램]  
1강/선(線)-감정의 표현  
2강/콜라주-내가 보는 나의 모습, 남이 보는 나의 모습  
3강/색채 심리  
4강/색의 이해와 생활에의 응용(1차시)-톤의 이해, 크레파스의 이해, 색의 표현, 마리오랑생의 작품모사  
5강/색의 이해(2차시)-작품완성 및 평가
- 대상/초등학생 4학년부터 성인까지

## 제96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콘서트

일 시 | 3월 21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모임 새봄맞이 시마당 제151회 詩 낭송회

일 시 | 3월 24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안태봉 017-552-0626

## 2015 국립부산국악원 문화가 있는 날 OPEN HOUSE

일 시 | 3월 25일 수요일 오후 2:00 국립부산국악원  
입장료 | 무료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7

- \*\*\*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예술단 연습 관람과 의상, 국악 체험, 국악원 시설을 견학하는 'OPEN HOUSE'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극장 문턱을 낮춰 시민들의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행사로,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가량 진행된다.

## Concerts 콘서트

### 김미경의 TALK & SHOW '나 데리고' 사는 법-부산

일 시 | 3월 2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5만원  
문 의 | (주)WSM 1566-5490



\*\*\*  
꿈과 희망을 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강사 김미경의 TALK & SHOW. 더블유 인사이츠 대표, 김미경의 이클래스 대표, 아트스피치 원장 등 기업인이지만 지난 20여년간 200만 청중을 만나면서 국민강사로 자리잡은 김미경은 빼어난 말솜씨와 감동의 스피치로 '스타특강쇼', '김미경쇼' 등 방송에서 청춘들을 위한 조언을 통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김미경의 TALK & SHOW는 기존 김미경이 진행했던 수많은 강연과 같은 형식에서 벗어나 꿈, 슬럼프, 행복이라는 세가지 주제로 다양한 강의와 진실한 토크, 색다른 퍼포먼스로 관객과 만난다.

## '멋과 풍류-3인 묵향' 전

일 시 | 2월 7일(토)~3월 6일(금) 미광화랑  
문 의 | 미광화랑 758-2247

- \*\*\*  
'부산·경남 한국화 화단의 3대가'로 불리는 윤전허민(1911~1967), 윤재이규옥(1916~1999), 청초이석우(1928~1987)의 걸작 50여 점을 전시하는 유묵전.



이석우 작 '총회도'

## 하이트데이 특별전 'Be My LOVE'展

일 시 | 3월 1일(일)~3월 31일(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 김민경 개인전

### Camouflaged selves\_in the mirror

일 시 | 2월 24일(화)~3월 28일(토)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 데이드림 '피아노 치는 화가'展

일 시 | 3월 2일(월)~3월 14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 \*\*\*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음악에 참여하며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화가.

## 타워갤러리 특별기획 2015 '春-美'展

일 시 | 3월 10(화)~3월 20일(금)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 464-3939

## 고창용 윗칠 개인전 7년만의 외출

일 시 | 3월 16일(월)~4월 4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 이정록 개인전

일 시 | 3월 27일(금)~4월 23일(목)  
소울아트스페이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www.soulartspace.com

##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 ❖ 어느 날 문득, 타이베이

이주원 지음 / 북노마드 / 264p / 1만 3천 원

동남아시아 특유의 열기와 활기를 듬뿍 담고 있으면서도, 일본식의 깔끔함과 예의 바른, 중국식의 수더분함과 호방함을 동시에 품고 있는 타이베이. 타이완의 수도인 타이베이는 관광 명소와 먹거리가 넘쳐난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명소보다 더 재미있는 '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나이 많은 가로수와 편집 매장들이 어우러진 가로수길, 요리와 차(茶)에 대한 서적만 다루는 책방, 골목골목 숨겨진 작은 밥집과 찻집, 시장 등 타이베이 사람들의 일상 같은 것 말이다. 전작 <제주노킴>에서 손글씨로 제주 여행을 기록했던 그래픽 디자이너 이주원 씨가 이번에는 타이베이의 매력을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은 타이베이 5개의 지하철 노선을 따라, 17개의 정거장에 머물며, 천천히 걸어본 69개의 특별한 산보를 담았다. '지하철 노선을 따라 떠나는, 새로운 타이베이 골목 산보 69'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에 소개된 장소들은 지하철 노선과 정거장별로 분류되고 소개되어 있어, 독자들이 책의 구성을 이해하기도 쉽고 장소를 선택하기에도 좋다. 시내 곳곳을 연결하는 지하철을 따라 떠나는 여행은 시민들의 생생한 일상을 가까이서 엿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 ❖ 영화, 포장마차에서의 즐거운 수다

이달균 지음 / 이미지북 / 302p / 2만 3천 원

"내 영화의 시작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구해리 장터에서 펼친 천막극장이었다. 이동극장은 추석이 지나면 찾아왔다. 손님을 모으기 위해 확성기를 매단 차는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눈물 없는 볼 수 없는 영화, 손수건을 준비하고 나오시라'며 외치고 다녔다." 이 책을 쓴 저자 이달균 시인의 어린 시절 추억이다. 영화 한 편 보기가 쉽지 않았던 소도시나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우리 동네도 이랬다"고 고개를 끄덕일 이야기이다. "마산에서의 청소년 시절, 영화는 어린 자취생의 삶인 동시에 동경이었다"는 대목도 마찬가지다. 스크린 속의 화려한 장면과 아름답고 멋진 배우들은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했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공간 너머의 세계를 꿈꾸게 했다. 영화를 동경했던 소년은 자라서 시인이 됐고, 영화 이야기를 산문으로 썼다. 그의 영화이야기는 책의 제목 <영화, 포장마차에서의 즐거운 수다>처럼, 정말 정겹게 다가온다. 영화광인 친구와 포장마차에 앉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영화이야기를 듣는 기분이다.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은 "이달균 시인의 (영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 탁월한 안목과 재능"에 놀랐으며 이 책을 추천하고 나섰다.



### ❖ 간송미술 36

백인산 지음 / 컬처그라퍼 / 308p / 2만 원

간송 미술관 백인산 연구실장이 1천여 점이 넘는 간송미술관 수집 작품 중 조선시대의 문화, 예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이야기하는 옛 그림 36점을 골라 소개하는 책. 간송 미술관에서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술 연구에 매진한 저자의 탁월한 안목과 아름답고 재미있는 그림 설명으로 진정한 옛 그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책이다. 평온한 봄날 촌가의 마당에서 벌어진 한바탕 소동을 그린 '야묘도 추'라는 그림이 있다. 조선 후기 화원 집안 출신인 김득신의 작품이다. 풍속화에서 일가를 이룬 김득신은 김홍도, 신윤복과 더불어 '삼대 풍속화가'로 지칭된다. '야묘도추'는 고양이 한 마리가 병아리를 낚아 채 달아나자 암탉은 비명을 지르고, 이 소리에 놀란 주인장은 몸을 날려 장죽대로 고양이를 후려치다가 고꾸라지기 일보 직전이다. 방에서 맨발로 뛰어나온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황망해 할 뿐이다. 마치 영상으로 찍은 한 편의 이야기 같은 이 그림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심오한 사상이나 어려운 해석을 찾지 않아도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이 내 이웃의 일처럼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우리 옛 그림의 가장 큰 매력은 이처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렸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다.

## New Album... GM뮤직 제공



### ❖ 비발디: <조화의 영감 작품 3> 전곡 레이첼 포저(바이올린), 브레콘 바로크

<라 스트라바긴차>와 <라 체트라>로 비발디 협주곡 연주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레이첼 포저(Rachel Podger: 1968~)가 브레콘 바로크와 함께 드디어 비발디의 대표작 <조화의 영감 작품 3>을 녹음했다. 시대악기 앙상블의 산뜻한 음색과 폭발적인 다이내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과장되지 않는 절묘한 균형 감각과 풍부한 뉘앙스를 구사하는 영국 출신의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레이첼 포저와 연주자들의 해석은 이탈리아 계열 연주와는 또 다른 감동을 준다. 보안 치치치, 제인 로저스, 앨리스 맥길브레이 등 정상급의 시대악기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브레콘 바로크의 정밀하면서도 감각적인 연주 역시 최상의 수준으로, 이 곡의 디스크그래피에서 결코 빼 수 없는 새로운 명반이다. (2CD)



### ❖ 엠마 커크비 (Emma Kirkby) 리사이틀 전집 (한정판)

맑고 투명한 음성으로 루아조리 레이블의 수많은 르네상스, 바로크 음반들을 최고의 인기 음반으로 만들었던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를 위한 특별한 박스세트가 발매된다. 1980, 90년대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독집 음반 12장을 모은 것으로, 안소니 롤리와 함께 한 '영국 바로크 노래', '전원의 대화', '사랑의 대화', '이중창집'을 비롯해, 호그우드와의 '파셀 가곡과 아리아', 바흐 '칸타타', 헨델 '아리아', '칸타타', 모차르트 '모테트', 모차르트 '아리아집' 등을 모두 오리지널 커버로 담고 있다. 영국의 유력 음악전문지인 BBC 뮤직매거진이 역사상 최고의 소프라노 20명 가운데 한명으로 꼽은 엠마 커크비는 정규 음악교육을 받은 바 없이 옥스포드에서 고전학을 전공하다 24세가 되어서야 음악을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수정같이 투명하고 맑은 음성으로 고음악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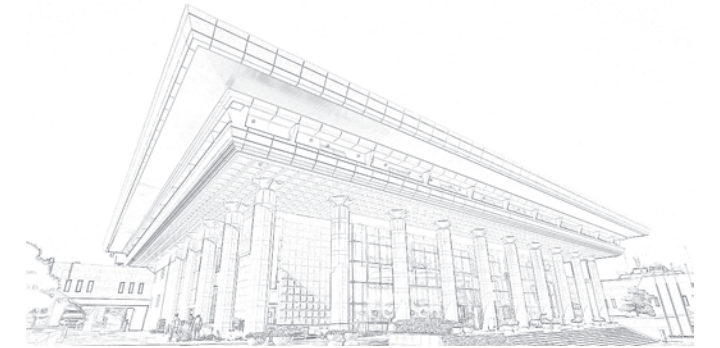
### ❖ 베토벤 교향곡 전곡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 - 이반 피셔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9개 모두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걸작으로서 초연 이래 지금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연주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이 문맥을 재구성하여 연주하는 지휘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결과 교향곡들의 해석과 음향은 계속 새로워졌다. 이반 피셔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영상물 전집은 이러한 새로움의 전통을 대변하는 최선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베토벤이라는 음악적 풍경을 향해 떠난 진실된 발견의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휘자 이반 피셔는 클래식 강국 헝가리 태생으로 빈에서 공부하고 영국 메이저 오케스트라의 러브콜을 받아 유럽의 주요 오페라 극장을 석권했다. 25세때 런던 러퍼트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BBC심포니, 런던심포니 등 영국의 메이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주목받았다.

# NEWS



## 3월 찾아가는 예술단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3월 공연이 확정되었다. 3월에는 2일 반석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을 시작으로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 내사랑 부산공연 등 모두 12차례 펼쳐진다.

### | 일정 |

- 3월 2일(월) 10:30 반석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무용단)
- 3월 2일(월) 14:00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무용단)
- 3월 3일(화) 09:20 부산지방국세청 강당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 '납세자의 날' 행사(출연/교향악단)
- 3월 3일(화) 10:35 누리마루  
내사랑 부산공연 '이전기관 환영 및 부산시대 선포식'(출연/교향악단)
- 3월 3일(화) 10:30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무용단)
- 3월 3일(화) 13:00 동구자성대노인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무용단)
- 3월 4일(수) 10:30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무용단)
- 3월 4일(수) 14:00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무용단)
- 3월 5일(목) 15:00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무용단)
- 3월 6일(금) 12:00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무용단)
- 3월 6일(금) 16:10 시청 국제회의장  
내사랑 부산공연 '여성조합원 워크샵'(출연/합창단)
- 3월 27일(금) 18:00 동구청 대강당  
내사랑 부산공연 '동구청 신춘음악회'(출연/국악관현악단)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4)

## 부산시립무용단 자매도시 카오슝시 '2015 등축제' 참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한국 춤의 아름다움과 멋을 선보여온 부산시립무용단이 3월 5일부터 대만 카오슝시에서 펼쳐지는 '2015 등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공연길에 오른다. 부산의 자매도시인 카오슝시에서 지난 2001년부터 펼쳐지고 있는 '카오슝 등축제'는 대만의 가장 중요한 전통축제 중 하나로, 매년 25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3월 6일 우리춤의 멋과 신명을 알리는 무대공연을 가진 후 7일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할 예정인 부산시립무용단은 신명나는 장고가락에 경고를 들고 다양한 춤사위를 구사하는 역동적인 '경고춤'과 베틀농음의 독특한 춤사위와 가락에 흥겨운 사물과 태평소 반주가 춤의 멋과 맛을 더하는 '소고춤'을 선보인다.

## 부산문화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 지원 사업 3개 프로그램 선정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토요오감놀이터 열씨구 樂'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극단 '연극아! 같이 놀자!' 소년소녀합창단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

부산문화회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비사업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공모에 3개 프로그램을 지원, 지원 프로그램 모두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서 '토요오감놀이터 열씨구 樂' 프로그램을 지원, 처음으로 선정된 바 있는 부산문화회관은 '열씨구 樂'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호응도에 올해 지원 사업에서 재선정되어 1,65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다.

2015년은 '열씨구 樂' 외에 특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부문에 시립극단의 '연극아! 같이 놀자!', 소년소녀합창단의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 등 2개의 프로그램을 기획, 2개 프로그램이 모두 선정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시립극단의 '연극아! 같이 놀자!'는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극체험의 기회를 통해 자아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놀이와 게임, 감상 등의 다양한 연극적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은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 동요를 다양한 장르와 연계해 초등학교생들에게 우리 동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동요를 자주 불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토요오감놀이터 열씨구 樂', '연극아! 같이 놀자!',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 | 교육 일정 및 모집 안내 |

#### ■ 토요오감놀이터 '열씨구 樂'

사업기간 : 3월~11월(상반기 15회, 하반기 15회)  
토요일 오전 10:00~12:00

개 강 : 상반기 3월 7일, 하반기 8월 8일

모집일정 : 상반기 2월 27일~3월 4일, 하반기 7월 27일~7월 31일

모집인원 : 상, 하반기 각 20팀(가족, 친구, 지인 4인 1팀 구성, 단 자녀는 초등 이상)

####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아! 같이 놀자!'

사업기간 : 3월~11월(1기당 4회 교육, 총 5기 운영)  
토요일 오전 10:00~13:00

사업일정 : 1기 4월 4일/4월 11일/4월 18일/4월 25일  
2기 6월 20일/6월 27일/7월 4일/7월 11일  
3기 8월 1일/8월 8일/8월 15일/8월 22일  
4기 9월 1일/9월 19일/10월 3일/10월 10일  
5기 10월 24일/10월 31일/11월 7일/11월 14일

모집인원 : 1, 3, 5기 중고등학생 40명, 2, 4기 초등 고학년 40명

프로그램 내용 : 연극과 친해지기(인사나누기, 거울 되어보기), 연극놀이, 연극 만들기(뮤지컬 장면만들기, 낭독공연 만들어보기), 연극 체험하기(시립극단 등 지역 공연 관람) 등

####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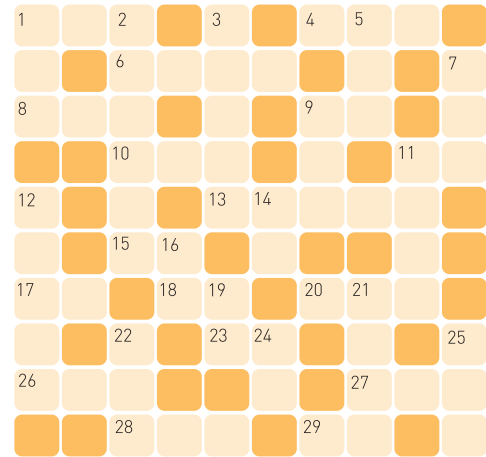
사업기간 : 3월~11월(1기당 5회 교육, 총 4기 운영)  
토요일 오전 9:30~12:00

사업일정 : 1기 4월 4일/4월 11일/4월 18일/4월 25일/5월 2일  
2기 6월 13일/6월 20일/6월 27일/7월 4일/7월 11일  
3기 8월 22일/8월 29일/9월 5일/9월 12일/9월 19일  
4기 10월 31일/11월 7일/11월 14일/11월 21일/11월 28일

모집인원 :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기수당 50명(부모님 참가는 선택)

프로그램 내용 : 교과서 동요속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동요, 마음으로 느끼는 동요, 교과서 전래동요 속으로, 나만의 동요집 만들기(북아트), 나도 작곡가, 나만의 동요 만들기 등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지난호 정답**

헨 켈 과 그 레 텔 **삼** 국 지  
 델 **오** 스 경  
**맘** 나 이 링 게 일  
 카 르 마 르 리 아  
 타 미 인 도 쿠 스 코  
 르 아 다 큐 퍼 디  
 시 빈 양 고 언  
 스 전 우 치 전 사  
**서** 산 야 성 우  
 겨 울 왕 국 제 인 에 어

2월호 퍼즐 당첨자

<b>공간소극장</b>	김민정(해운대구 윗반송로) 김수현(동래구 복천로) 박미정(기장군 차성로) 조정민(수영구 수영로) 최윤정(해운대구 청사포로)	<b>큰집</b>	김광열(부산진구 양지로) 김현우(동래구 명륜로) 박선재(사상구 냉정로) 이찬영(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최은영(해운대구 마린시티로)
<b>도시 음악의 기쁨 4</b>	김민혁(해운대구 해운대로) 남희경(서구 망양로) 성숙희(사하구 낙동대로) 양봉규(해운대구 대천로) 최민숙(영도구 태종로)	<b>조은극장</b>	김은옥(서구 대신공원로) 김지은(금정구 중앙대로) 문영미(동래구 복천로) 서희정(남구 번영로) 정인옥(남구 수영로)

## 가로열쇠

- 3월 2일부터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극단 2015년 첫 정기공연으로,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켜 참혹한 과거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질적 고통과 시대적 부조리를 무대에서 재현한다.
- 길이 6,992km, 유역면적 705만km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강. 페루 안데스산맥에서 발원하여 처음에는 북류하다가 나중에 동류하여 브라질 북부를 관류한 다음 적도의 대서양으로 흘러든다.
- 신재효(申在孝)가 개작한 판소리. 그가 지은 판소리 사설 6마당 가운데 가장 이색적인 작품으로 적나라한 성의 묘사와 노골적인 응답이 전면에 깔려 있는 외설적인 작품이나 이를 서민적인 냉소가 짙으면서도 차원 높은 문학적 표현으로 개작했다. 변강쇠타령, 횡부가(橫負歌).
-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 오리엔트 특급살인, 나일강의 죽 등 애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
- 1930년대 전라북도 남원의 물락해 가는 양반가의 며느리 3대(代) 이야기를 다룬 작가 최명희의 대하소설. 호남지방의 세시풍속, 관혼상제, 노래, 음식 등을 생생한 우리 언어로 복원해내 우리 풍속의 보고(寶庫), 모국어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 파면당한 전직 국정원 요원과 버림받은 남파 공작원의 이야기를 그린 장훈 감독, 송강호, 강동원 주연의 영화. 2010년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 대한민국 영화대상을 수상했다.
- 고구려 제25대 평원왕의 딸이자 온달의 아내.
- 작곡가 린스키 코르시코프의 오페라 '술단 황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관현악곡이었으나 요즘은 다양한 악기의 독주곡으로 연주된다. 발들의 날개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묘사한 만큼 연주자의 고도의 테크닉이 요구된다.
- 천주교에서 남녀가 일생 동안 부부로서 인연을 맺음.
- 안개보다는 조금 낫고 이슬비보다는 조금 가는 비.
- 한국 전통음악의 기악연주에서 쓰이는 독보법(獨譜法)의 하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실제의 소리에 가깝도록 의성화하여 입으로 소리내어 부를 수 있도록 문자로 기록했다.
- 고대 가장 유명한 도시 중의 하나. 중심부에 수호신 마르두크의 사원인 에시갈라가 비벨탑으로 알려진 에테메안키라는 탑과 함께 있었으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
- 전남 구례에 자리한 사찰. 544년(신라 진흥왕 5) 인도 승려 연기(緣起)가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677년(신라 문무왕 17) 의상대사가 화엄(華嚴十刹)을 불법 전파의 도량으로 삼으면서 중수하였다.
- 스웨덴에서 출발한 저가형 가구, 액세서리, 주방용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 한국에는 지난해 12월 광명점을 오픈하면서 진출했다.

- 동영의 대표적인 명소. '동쪽 배랑'이라는 뜻으로, 구불구불한 오르막 골목길을 따라 마을에 오르면 담배막이다 그려진 형형색색의 벽화가 눈길을 끈다.
- 고양이를 통해 인간의 속성을 우화적으로 그린, 브로드웨이 4대 뮤지컬 중의 하나.
- 나동강 하구 최남단에 있는 명승지.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물운대와 함께 곱고 부드러운 흰 모래사장이 전개되어 좋은 해수욕장을 이루고 있다.
- 나동강 하구 최남단에 있는 명승지.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물운대와 함께 곱고 부드러운 흰 모래사장이 전개되어 좋은 해수욕장을 이루고 있다.
- 통근의 편의시설을 원칙으로 한 3부작 시리즈 영화.
- 양백에 새긴 불상.
- 한국(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면서 황해로 흘러드는 강. 길이 803km, 유역면적 6만 3160km로 동베이 자강과의 국경을 이루는 국제하천으로 한국에서 가장 긴 강이다.
-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여 천문시계의 구실을 하였던 기구. 삼국시대 후기에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일례로 많이 든다.
- 부산시립무용단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인문로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우리춤의 매력을 전해주는 특별한 무대.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로 유명해진 지역으로, 특히 순천만 치린 갯벌에서 나는 꼬막이 유명하다.
-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이 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서로 쳐서 넘기는 구기(球技).
- 음의 길이 또는 높이를 지시하는 기호.
-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정보기술 시대를 선도해 온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 이제는 일선에서 은퇴해 자선사업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골동품, 화랑, 표구, 필방, 전통공예품, 전통차집, 전통음식점 등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거리.
- 태양이 춘분(春分)에 지나는 점(춘분점)을 기점으로 하여 황도(黃道 : 지구에서 보았을 때 태양이 1년 동안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길)에 따라 움직인 각도를 말하며, 이 황경이 0일 때를 춘분, 15일 때를 청명(淸明) 등으로 구분하는데, 15°간격으로 24개 날짜가 구분된다.
- 간반이 달린 타현악기. 화성악기, 선율악기의 두 요소를 갖추고 있는 민중 악기로 널리 쓰이고 있다.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음료 10%할인</b>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b>커피 10%할인</b>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식사 10%할인</b>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Tel. 051)626-2592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b>식사 5%할인</b> Tel. 051-624-227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b>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b>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전상품 10% 할인</b> Tel. 080-337-337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b>디럭스 객실</b> 정상가 300,000원 → 할인가 99,000원 (세금포함/조식포함/상수기 기간 제외) 예약문의 : 051)678-1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
	부산문화회관 & 굿월치과병원 협약기념 <b>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b> 덕천 1 33,6000 하단 1 209,6015 서면 1 606,6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50-05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929-5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19-0173



# 2015 부산문화회관 예능아카데미



소리 박성희   성악가 엄정행   클라리넷 이민호   클래식기타 고충진   가야금 오은영   사물놀이 전학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실기강좌

## Program

- 3. 9 ~ 6.29 매주 월요일 박성희와 함께하는 풍류마당
- 3.12 ~ 5.28 매주 목요일 엄정행 노래교실
- 3.11 ~ 5.27 매주 수요일 서양음악실기 - 클라리넷
- 3.13 ~ 5.29 매주 금요일 서양음악실기 - 클래식기타
- 3.10 ~ 6. 2 매주 화요일 전통실기 - 가야금
- 3.12 ~ 5.28 매주 목요일 전통실기 - 사물놀이

개강 2015. 3.9(월)

접수 2015. 2.9(월) ~ 3.4(수)

접수방법 방문 접수 및 전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전 강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수강료 납부 순서로 선착순 모집 마감)  
접수처 및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607-3102~4) 사정에 따라 커리큘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 부산문화회관

# 예술아카데미

다양한 예술장르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고품격 이론강좌



배선주 미술의 인문학적 접근  
- 곰브리치 서양미술사를 중심으로  
3.24 ~ 6.16 매주 화요일

박종화 건반위의 이야기  
3.27(금) / 6.19(금)  
8.4(화) / 12.11(금)

장일범 명작 오페라 속으로2  
4.6 ~ 7.13 매주 월요일

개강 2015. 3.24(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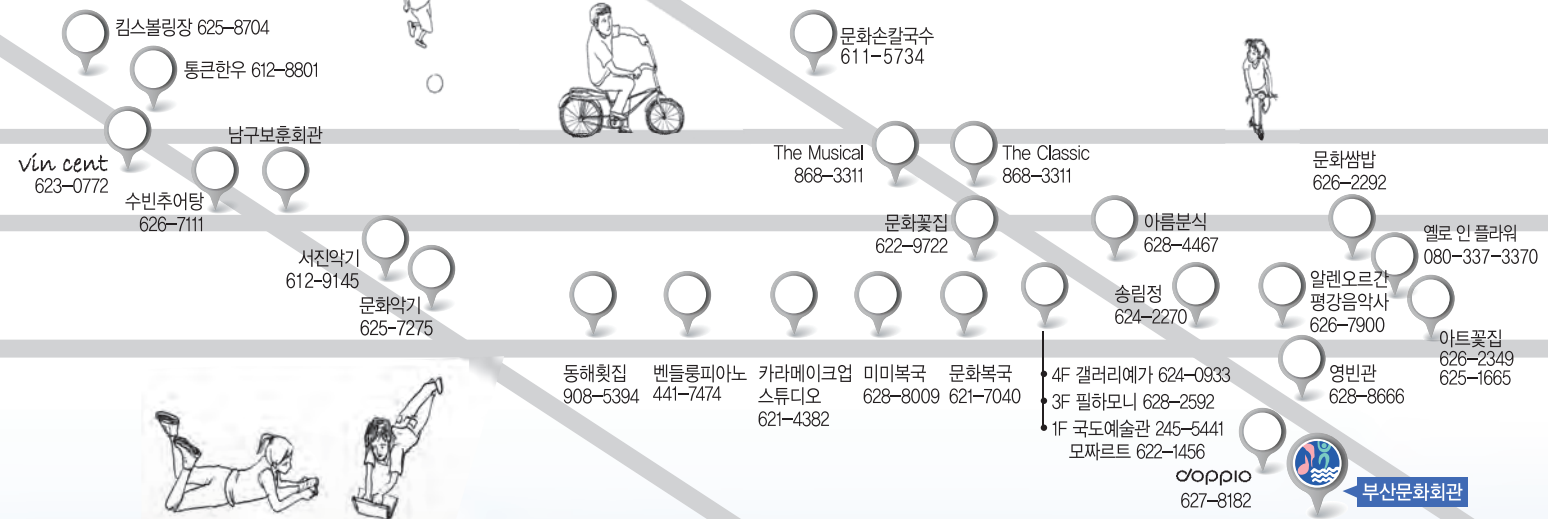
접수 2015. 2.23(월) ~ 3.18(수)

접수방법 방문 접수 및 전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전 강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수강료 납부 순서로 선착순 모집 마감)

접수처 및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607-3102~4) 사정에 따라 커리큘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신적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 201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안내

**3월 7일 개강** 부모, 자녀, 친구가 함께하는 국악체험형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토요일감놀이터 '얼씨구 락'**  
 사업기간 : 3월~11월 10:00~12:00  
 상반기 접수 : 2월 27일(금)~3월 4일(수)  
 대상 : 4인 가족 · 친구 20개팀 선착순(초등학생 이상 참가 가능)

**<1기> 4월 4일 개강** 2015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엄마랑 아빠랑 함께하는 교과서 동요여행**  
 1기 접수 : 3월 23일(월)~27일(금)  
 1기 : 4월 4일~5월 2일 (총 4기 진행) 매주 토요일 09:30~12:00  
 대상 : 초등 3~6학년 50명 선착순

**<1기> 4월 4일 개강** 2015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부산시립극단  
**연극 아! 같이 놀자!**  
 1기 접수 : 3월 23일(월)~27일(금)  
 1기 : 4월 4일~4월 25일 (총 5기 진행) 매주 토요일 10:00~13:00  
 대상 : 중 · 고등학생 40명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아카데미 담당  
607-3102~4  
 접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